

3-15-2007

바울의 선교전략과 지역교회의 적용:영락교회를 중심으로

Chun Tae Park 박춘태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박춘태, "바울의 선교전략과 지역교회의 적용: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7.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PAUL'S MISSION STRATEGY AND ITS APPLICATION TO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OUNGNAK CHURCH

written by

CHUN TAE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Ah Young Kim

Young Shin Kim

Seyoon Kim

March 15, 2007

**PAUL'S MISSION STRATEGY AND ITS APPLICTION
TO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OUNGNAK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CHUN TAE PARK

MARCH 2007

바울의 선교전략과 지역교회의 적용: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아영 교수

박 춘 태

2007년 3월

Abstract

Paul's Mission Strategy and its Application to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oungnak Church

Chun Tae Park

Doctor of Ministry

200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obe Youngnak Church's mission strategy by integrating the concrete practices with Paul's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Every church has her own mission strategy and practice according to the vision and philosophy of the Church in terms of outreach in a local and worldwide area. Youngnak Church also has her own mission strategy and practice. This missional task considers biblical foundation and cultural relevance.

Most of all, this research builds up the foundation for mission of the early churches as the basis of Youngnak Church's mission. Early churches have their own peculiar backgrounds with regard to mission. Early Church has three backgrounds in terms of mission: Roman empire political, Greek cultural, and Jewish religious backgrounds. All these contexts are crucial elements for Early Church's mission.

Second, as missionary of the early church, Paul has his own missiological principle. The principles and concrete practices of his mission could be understood by investigating and considering the descriptions of the Acts and his epistles. Paul's mission was appropriate for the political, cultural, and religious context in which he lived.

Third, as a contemporary model of mission, Youngnak Church seeks for her own mission strategy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biblical teach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aul's case. The history of Youngnak Church tells that she has been growing with developing and articulating the strategy and practice of

mission for the area around her and worldwide area. The main strategies of Youngnak Church's mission refer to three points: cooperation mission, urban-centered mission, and efficiency-oriented mission. All of the missionaries' principle and role are developing these three strategies in their missiological fields.

Theological Mentors: Ah Young Kim, Ph. D.

Young Shin Kim,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부족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신학을 하게하시고, 목회의 길을 걷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회현장에서 많은 훈련을 받게하셨는데, 특별히 영락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은 목회철학을 세우는 일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며,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이철신 담임목사님의 격려와 배려를 잊을수 없으며, 함께 동역한 많은 교역자들의 기도와 응원이 크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목회자의 성장을 돕는 영락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논문을 지도해 주신 김아영 박사님은 부족한 저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친절히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시며 논문을 마무리 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김 박사님의 격려와 지도가 감사하게만 느껴집니다. 부심을 말아 지도해주신 김영신 박사님과 지속적인 학문의 열심을 내도록 도전해주신 김세운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격려하고 큰 힘이 되어주신 김태석 목사님의 도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분들과의 만남은 커다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락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행복을전하는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않은 개척사역에 기쁨으로 동역하는 이구연 목사님, 늘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서해성, 김현정, 신정혜, 홍찬의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비전그룹 식구들과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열정적인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목회도, 이 논문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분들과 함께함이 저에겐 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끝으로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어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또한 곁에서 늘 따뜻한 격려와 기도로 내조해온 사랑하는 아내와 삼남매 다은, 주현, 성현이와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7년 3월 박춘태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초대교회 선교의 배경	4
제 1 절 정치적 배경: 로마제국	5
1. 로마의 정치: 복음전파의 대로를 열다	5
2. 로마의 종교: 종교선택의 자유	6
제 2 절 문화적 배경: 헬라문화	8
1. 헬라의 언어: 복음전파를 위한 공통어	8
2. 헬라의 사상: 복음전파를 위해 준비된 정신세계	9
제 3 절 종교적 배경: 유대주의	11
1. 디아스포라: 복음전파를 위한 전초대원	11
2. 회당: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14
3. 70인역: 복음전파의 유용한 도구	17
제 4 절 초대교회 선교배경과 영락교회 선교배경	18
제 3 장 바울의 선교전략	21
제 1 절 선교 전략의 필요성	21
1. 전략의 개념	21
2. 선교에 있어서 전략의 필요성	22
제 2 절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전략	25
1. 동역자들과의 협력	26
2. 도시중심의 선교	28
3. 반응좋은 곳에 집중하는 선교	32

제 4 장 영락교회의 선교 현황	36
제 1 절 영락교회 역사	36
1. 신앙과 해방공동체로 세워진 영락교회(1945-1949)	36
2. 시련 속에 성장한 영락교회(1950-1965)	38
3.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이끈 영락교회(1966-1983)	42
4. 저력있는 신앙공동체로서의 영락교회(1984-1996)	44
5. 새로운 도약을 하는 영락교회(1997-현재)	46
제 2 절 영락교회 선교정책	47
1. 국내 선교 정책	49
2. 해외 선교 정책	56
제 3 절 영락교회 선교현황	58
제 5 장 바울의 선교전략에 비취본 영락교회 선교개발	61
제 1 절 동역자들과의 협력선교	62
제 2 절 도시중심의 선교 개발	75
제 3 절 선교의 효율성 개발	88
제 6 장 결론	94
참고문헌	101
Vita	10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사도들이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명으로 세상을 향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다. 반 룰러(Arnold A. Van Ruler)와 호켄다이크(Johnannes C. Hoekendijk) 등 많은 학자들은 교회의 사도성에 대하여 선교는 선택과목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¹⁾

세계선교의 하나님의 근거지는 교회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세계선교는 어렵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선교에 열심이었을 때 선교가 활발했고, 그렇지 않을 때 선교운동도 침체하였다.²⁾ 그러므로 교회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³⁾는 에밀 브루너(Emil Brunner)의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초대 교회가 악조건 속에서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무척 긍정적이었다는 면이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열정과 철저한 헌신의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선교의 핵심인물인 사도바울을 통해 참된 선교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가 사용했던 선교전략을 연구하여 영락교회의 현재 선교방법과 앞으로의 선교개발을 살펴 보려 한다.

1)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운택 역 (서울: 두란노, 1991), 103-104.

2) 서정운, “세계와 선교,” *교회와 신학* (1996), 106-107.

3) Emil Brunner, *The Word and the Church* (London: SCM, 1931), 108.

영락교회는 해방 이후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다. 해외 선교는 물론이고, 군선교와 학원선교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군부대 내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도 설립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가난하고 병든 소외계층을 위해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등을 세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영락교회는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 선교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많이 잃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열정면에서뿐만 아니라 크게 변하지 않은 선교 전략면에서도 그렇다. 그러므로 영락교회가 지속적으로 시대에 맞는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실천해서 21세기에도 역동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방법을 사도바울에게서 찾고자 한다.

사도바울의 선교전략과 영락교회의 현재 선교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장단점을 찾고 새로운 선교 개발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분류해서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한다. 2장은 초대교회 선교의 배경을 살펴보는 데, 특히 로마제국의 정치와 종교, 헬라의 언어와 사상, 유대의 디아스포라, 회당 그리고 70인역 등을 연구하여 그것들이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이는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의 배경을 알 때 그가 사용했던 선교전략을 좀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시대와 영락교회의 선교지 환경을 분석하여 초대교회의 선교 배경과 연결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바울의 선교전략을 연구하는데, 수많은 바울의 선교전략 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21세기 상황에도 여전히 중요한 선교전략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영락교회의 선교전략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전략은 동역자들과의 협력, 도시중심의 선교, 반응 좋은 곳에 집중하는 선교이다. 이들 바울의 대표적인 선교전략을 분석하여 5장 바울의 선교전략에 비취본 영락교회 선교개발을 전개해 갈 때 표본으로 삼고자 한다. 4장에서는 영락교회의 선교현황을 알아보는데, 먼저, 영락교회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영락교회의 선교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선교현황에서는 국내선교부와 해외선교부, 그리고 북한선교부와 문화선교부 등 네 개의 부서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영락교회의 해외선교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한다. 영락교회의 약사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 당시의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사건들과 한국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의 영락교회의 활동과 성장사를 다루게 될 것이다. 5장에서는 사도바울의 선교전략에 비춰본 영락교회 선교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 언급했던 사도바울의 대표적인 선교전략들과 영락교회의 선교전략과 현황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논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담임목사와 선교부 지도목사는 물론이고 해외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파송선교사들의 의견도 참고하며, 선교에 헌신적인 여러 성도들과 대화한 내용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 특정 선교지를 언급할 때 국가명과 지명을 기록하기 힘든 경우에는 보안상 영어 알파벳 이니셜로 표기하고자 한다. 마지막 6장 결론에서는 5장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힘써야 할 사역의 내용들과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을 분류하고 실천을 촉구하고자 한다.

특별히 영락교회의 선교현황을 소개할 때와 사도바울의 선교전략과 비교연구할 때는 영락교회의 해외선교에만 국한시키고자 한다. 국내선교와 문화선교, 특히 북한선교를 다루기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영락교회의 해외선교전략을 사도바울의 선교전략과 비교하면서 반성과 발전적 개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제 2 장

초대교회 선교의 배경

복음을 전하는 시대의 환경은 계속 변화할 것이며 그 환경에 따라 복음전파의 열매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그 배경이 복음전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당시의 선교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영락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시대, 그리고 영락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선교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도록 예수께 위임받은 사람들은 11명에 지나지 않았다(마 28:19). 그들은 학식이 있거나 유력한 재정 후원자들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는 살아 계시고 주의 성령이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 앞에 복음전도의 장애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계 역사상 1세기만큼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던 때는 없었다.⁴⁾ 다시 말해 복음전도에 있어서 로마적, 헬라적, 유대주의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은 당시에 복음전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

스티븐 니일(Stephen Neill)은 초대교회 당시에 다음과 같은 면에 있어서 복음전파에 유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통일제국 수립과 잘 포장된 도로건설, 둘째는 로마가 헬라어를 상업적인 용도와 교육층의 친숙한 대화의 매체로 채택하였고 셋째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막대한 숫자의 유대인, 넷째로 준비된 엘리트로 이는 사도 시대의 선교가 그 후 시대의 선교와 다를 수밖에 없고 비교를 불가능하게 한 요인이라고 말한다.⁵⁾ 그리고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로마의 평화, 헬라문화, 유대종교 등 세 가지가 복음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⁶⁾

4)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0-11

5) Stephen Neill, *기독교선교사*, 홍치모, 오만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6), 29-31

초대교회의 복음전도를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로마제국의 정치와 종교, 헬라의 언어와 사상, 그리고 유대교적 배경, 특히 디아스포라, 회당, 그리고 70인역을 통해 초대교회의 선교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정치적 배경: 로마 제국

1. 로마의 정치: 복음전파의 대로를 열다

그리스도 교회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속국이였다. 그 거대한 로마제국은 영국에서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북유럽까지 이르렀다.

아우구스트 시저(August Caesar) 때에 이르러 로마제국은 그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의 통치하에 공화국이 제국으로 국가체제가 바뀌었다. 그의 통치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호적령이 내려졌다(눅 2:1). 변경의 일시적 충동을 제하고는 평화는 아우구스트 통치 때부터 200년 이상 유지되었다. 세계 사상 유래가 없던 태평성대를 누리 '로마의 평화'를 이룩하게 된다.⁶⁾

이런 평화는 강한 군대를 세워 국토를 통일하고 헬레니즘을 통하여 문화를 지배하고 이상적인 법을 제정하여 민심을 모으는 데서 지속될 수 있었다. 로마는 이러한 외적 평화를 이루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적 평화의 나라를 조용히 준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로마제국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같은 시대에 상보성을 띠고 태어난 것이다. 마치 교회를 씨에 비교한다면 로마 제국은 그 씨가 뿌려질 밭이었다. 그리고 복음을 누룩으로 본다면 로마는 반죽된 밀가루이다. 누룩이 반죽된 밀가루에 잘 섞일 때 떡이 잘 부풀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준비된 로마제국 속에 파고들으로써 복음화된 로마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게다가 로마의 세계통일은 동서와 남북의 벽을 뚫어 복음전파의 장벽을 제거해 주었다. 훌륭한 군사도로와 교통수단의 개발은 복음의 확산을 크게 도왔고 높은 수준의 법과 질서 유지는 전도자로서 로마 시민권 소유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편리함을 제공했다(행 16:37-39; 26:25, 32).⁷⁾

6)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11-37.

7)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2), 11-12.

로마 제국의 위대한 평화가 계속되는 시기인 아우구스투스 황제(Augustus)의 치세 초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특히 아우구스투스는 도로에 관심을 기울였다. 훌륭한 도로망이 로마로부터 제국의 모든 구석까지 퍼져,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군대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공공 우체국을 통하여 소식이 빨리 전달되었다.⁸⁾ 로마제국은 광대한 지역 위에 그 유례가 없는 거대한 통일 제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경지역에는 항상 충돌이 있었다. 잇따른 지방 반란은 로마제국의 고질병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발생시 신속한 군대 이동과 소식 전달을 위해 잘 닦여진 도로가 필요했던 것이다. 로마인이 가는 곳마다 잘 포장된 도로가 건설되었다. 19세기 이전 어떤 시대보다도 로마시대의 여행은 안전하고 신속하였다.¹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소아시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발견된 한 상인의 무덤 위에 써있는 비문에는 그 상인이 로마에 적어도 일흔 두 차례나 여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로마 제국의 어디에서고 통행증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으며 도로 사용료만 조금 내면 되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도로망을 최대한 이용하였고 그것은 복음전도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¹¹⁾ 상인들이 재정적 이익을 위하여 그 도로를 밟았다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밟았던 것이다.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이 도로망은 신약성경과 2세기의 문서들을 보급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로마는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각 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존중하여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상당한 자치권을 허용하였다. 특히 종교문제에도 대단히 관대하여 유대교는 종교허용이라는 칭호로 특별대우를 받았다.¹²⁾

2. 로마의 종교: 종교선택의 자유

로마는 국내 안보 유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엄격하였다. 모든 지역으로부터 공물을 거두었고, 공물을 회피하는 자는 엄하게 처벌하였다. 반면에 제국의 안전

8) 김의환, *기독교회사*, 12.

9) Ibid., 15

10) Neill, *기독교 선교사*, 29-30.

11)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15.

12) 장훈태, *초대교회 선교* (서울: 솔로몬, 1996), 23-24.

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앞서 서술한 대로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관대했다.¹³⁾

기독교가 발생하던 때 로마세계에 유행했던 민중의 종교는 전통적 희랍, 로마의 신화적 신앙과 아울러 점성술 및 마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교이거나 신비종교였다.¹⁴⁾ 일반적으로 로마시민들은 자기들 출생지의 종교를 추종하였으나 알렉산더와 로마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입문을 통해서 종교를 선택하게 되었다.¹⁵⁾

당시의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신비종교로 알려진 이상한 사이비 종파들이 많았다. 이러한 종교들은 조로아스터교나 유대교에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종교적 전통에서 나온 사상들을 섞은 혼합종파였다. 신비종교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은 단순한 미신이라고 일축하고 스토아 철학을 비롯한 제반 철학 사상들은 이해를 초월하는 지루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제공해 주었다. 이런 종교 중에는 나중에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도 있었다. 영지주의가 그 좋은 예이다. 신비종교들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몇 가지 피상적인 유사점들이 있다. 둘 다 동방에서 로마로 왔고 추종자들에게 구원을 제공한다고 전하였다. 또 입교의식과 성례식을 행하였고 그들의 구주신을 '주'라고 불렀다. 그런데 신비종교로부터 개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서 신비종교의 신앙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했다.¹⁶⁾

헬라 종교는 혼합주의적이고 상대적이어서 헬라인들은 원하는 신이라면 어떠한 신이든지 경외심을 표했으며 헬라 신흥 종교들은 신비에 치중하였다. 이들 종교는 신화나 신학도 없는 예배의식과 각종 제사와 각종 의식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확실성을 찾는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다. 이런 영적 갈망이 복음의 신속한 전파의 준비가 된 것이다.¹⁷⁾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술을 마귀적인 것으로 보아 정죄하였고, 신비종교 역시 기독교를 흉내낸 마귀의 소치로 보아 배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민중 종교

13) Herbert Kane, *기독교 세계선교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4

14) 김명혁, *신학지남*, (1976), 58-62

15)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31

16) John W. Drane, *초대교회의 생활*, 이종수 역 (서울: 두란노, 1989), 22.

17) 강석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바울의 선교에 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대학원, 1989, 13.

들 속에 영원한 진리와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민중으로 인해 마술이나 신비종교는 복음을 위한 역할을 했다.¹⁸⁾

로마의 종교를 말할 때 황제숭배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로마는 이를 통일과 충성의 방법 및 수단으로 생각하여 황제의 상 앞에 향불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을 반역이나 불충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황제 앞에 향불 밝히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반역자로 몰아 붙였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진리와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민중의 종교적 욕구가 있었기에 그들의 삶 속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 2 절 문화적 배경: 헬라 문화

1. 헬라의 언어: 복음전파를 위한 공통어

헬라(그리스)도 역시 기독교의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헬라어였다. 이 언어는 지중해 연안에 널리 보급되어서 세계적인 공통어의 역할을 하였다. BC 4세기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헬라어와 헬라문화는 아시아에 깊숙이 전파되었다.²⁰⁾ 다시 말해 알렉산더의 점령지들은 1세기 이전에 이미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²¹⁾ 헬라가 로마의 통치 하에 들어갔을 때인 BC 2세기 경부터 헬라어는 라틴어와 경쟁하였다. 헬라어를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 어디서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헬라어 교회였다. 로마제국은 헬라어를 상업적인 용도와 교육층의 친숙한 대화의 매체로 채택하고 있었다. 177년 경 남부 프랑스의 리용과 비엔의 교회들이 세계 그리스도 교회에 그들의 당하는 끔찍한 박해를 알렸을 때도 헬라어를 사용하였다. 1세기경의 유명한 교육자인 퀸틸리안(Quintilian)은 소년들이 헬라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당시의 많은 로마의 공적인 비문은 헬라어로 쓰였다. 키케로는 이미 라틴어가 자기 본국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 반하여 헬라어는 부분적으로라도 세계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보았

18) 김명혁, *신학지남*, (1976), 62.

19) Gonzalez, *초대교회사*, 32.

20) Neill, *기독교 선교사상*, 30.

21)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15

다. 쥬베날(Juvenal)과 마티알(Martial)이라는 풍자 시인들은 여성들까지도 헬라어로 구혼을 한다고 비꼬았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헬라어로 말을 하였으며, 소아시아 출신이었던 이레니우스(Irenaeus)가 2세기에 프랑스에서 그의 선교사역을 가지고 변증적 작품들을 헬라어로 썼던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의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Claudius Lysias)가 사도 바울에게 그가 이집트인 자객의 두목인 줄 생각하고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행 21:37) 하고 물어본 사실은 흥미있는 일이다.²²⁾

복음이 로마 제국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이 주전 2세기경 헬라어로 번역되었고,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당시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된 사실에 기인한다.²³⁾ 헬라어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잘 어울리는 언어이다.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 세계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생각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철학적, 신학적 용어들을 갖춘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²⁴⁾ 통일된 언어가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복된 소식을 훨씬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통일된 언어인 헬라어는 복음전파를 위한 좋은 도구였다.

2. 헬라의 사상: 복음전파를 위해 준비된 정신세계

로마는 기독교 선교를 위해 지리적인 무대를 준비해 주었다면, 헬라인들은 언어와 사상 등의 지성적인 배경을 준비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헬라의 사상인 플라톤주의와 스토아주의는 기독교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등의 철학자들은 고대의 신들을 비평하였고, 완전하고 불변하는 지존의 존재에 관하여 가르쳤으며, 영혼의 불멸을 믿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유전하는 사물들을 뛰어넘어 영원한 진리의 고상한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스토아주의는 매우 고상한 윤리적 기준을 주장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으로서 개발해야 할 덕성 네 가지는 도덕적 통찰력, 용기, 극기, 그리고 정의 등이다. 그러기에 스토아주의는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당시의 종교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신들이 인간들을 보다 덕있는 생활로 이끄는 것이

22)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16-17.

23) 김명혁, *신학지남*, (1976), 58-59.

24)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17.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한다고 보았다.²⁵⁾ 엄한 헬라의 사상과 진지한 헬라인의 진리 추구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숭배해 왔던 무가치한 신들에 대하여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인간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자신의 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인간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다.²⁶⁾

플라톤은 그 이전의 사상가들의 철학적 관심 곧 우주론 전체로서 보려는 견해와 인간 이해를 철학의 주된 관심으로 보려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조화시키려 하였다. 그의 이데아론은 그의 철학의 중심을 이루었다. 자연과 인간세계의 모든 것은 결국 이 이데아와 형상의 신비스러운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의 복사에 불과하다. 선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의 철학을 윤리적인 성격을 띠게 하였다. 이런 플라톤의 사상은 주전 200여 년간 유대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2세기 이후 기독교 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²⁷⁾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는 데 플라톤 사상의 이해는 필요 불가결했다. 초대교회를 괴롭힌 그노스틱주의(Gnosticism)와 아리안주의(Arianism)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그 사상적 연원을 찾을 수 있다.²⁸⁾

스토아주의(Stoicism)는 헬라사람, 특히 아테네인들이 서로 토론하기 위하여 시장의 길 어귀에서 모이는 습관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런 길 어귀 토론을 사이프러스인 제노(Zeno)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철학이 스토아주의로 알려지게 되었다. 스토아주의는 우주의 원리보다는 인간의 윤리면을 더 중시하였다. 그의 철학은 플라톤과 같이 관념론적이 아니라 오히려 유물주의적 범신론에 가까웠다. 그는 순전한 영은 없으며 마음이나 육체가 다 물질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의 신관도 물질주의적이므로 신을 바닷물에 인간을 물방울에 비유하였다. 인간의 영혼은 신의 부분이며 신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상의 물질적 범신론은 후대 기독교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 사상에 물든 지성인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멸시하며 대적하였다.²⁹⁾

이러한 헬라 철학자들로 말미암아 위치가 고정된 신은 전적으로 자존재(自存在)

25) Gonzalez, *초대교회사*, 32-34.

26)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18.

27)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2), 13-14.

28) Ibid., 14.

29) Ibid., 14-15.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요, 구속하시는 유대-기독교 전통의 하나님과 혼동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신교나 일원론 쪽으로 일반적으로 기울어진 것은 복음전도에 대한 중요한 준비이며 기독교인들이 건물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었다.³⁰⁾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 속에 만들어졌다고 말한다면 스토아 학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또한 죽음 후에까지도 악한 영들은 벌을 받게 되며, 선한 존재의 영들은 벌을 받는 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축복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시인들이나 철학자들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³¹⁾

이와 같이 기독교 복음전도를 위해 준비된 헬라의 언어와 많은 철학자들을 통한 헬라의 사상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되었다.

제 3 절 종교적 배경: 유대주의

1. 디아스포라: 복음전파를 위한 전초대원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훨씬 전부터 팔레스타인을 떠나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계속 증가하였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였다. 이집트에서는 7세기경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5세기 후에 또 다른 성전을 짓기도 하였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대도시에 상당수의 유대인 공동 사회가 있었다. 이처럼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들 선조의 조국과 강한 감정적, 종교적 유대감을 간직하였는데 이들이 곧 '디아스포라' 혹은 '분산 유대인들'이다.³²⁾

유대 사회의 중심지는 여전히 예루살렘이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고 매일 매일 희생 제사가 드려졌으며 수많은 순례자들의 순례 축제가 열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물하신 고향에서 사는 것이라 여겼

30)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21.

31) Ibid., 22.

32) Gonzalez, *초대교회사*, 26.

으나 이스라엘 밖에서 사는 유대인은 이방에서, 즉 불결한 땅에서(삼상 26:19-20; 암 7:17 참조)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져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초기 기독교인들의 시대에는 이스라엘보다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다.³³⁾ 그래서 지중해 지역의 어디에서나 유대인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은 큰 교통로를 따라 상업지와 항구 도시에 정주하려고 유랑길을 떠났다. BC 2-1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치열하였던 전쟁이 빈궁과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심한 고통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³⁴⁾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 부여했던 권한은 유대교의 기반과 확산을 촉진하였다. 유대인들은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었고 안식일에는 관청이나 재판에 출두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공동체는 독자적으로 그들의 상황에 맞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었다. 모든 유대인들은 매년 최소한 반 세겔(날뽕팔이 노동자의 이틀 분 품삯과 같다: 마 17:24-27; 20:29)을 성전세로 성전에 납부하였다. 사정에 따라서 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이 더 많은 돈을 내기도 하였다. 많은 유대인들은 순례 축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였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모국과 예루살렘과의 연락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와 연락을 취하였다(행 9:2; 28:21 참조).³⁵⁾

디아스포라 유대사회는 희랍문화와 문명을 강하게 접하게 되었다. 희랍의 건축 양식에 따라 회당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희랍인들의 생활 습관을 이어받아 극장에 가기도 하며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곧 히브리어 내지는 아랍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가능한 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헬라주의 도시들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며(행 21:39 참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자 노력을 하였다(행 16:37; 22:25-29 참조).³⁶⁾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개방하였던 헬라어와 헬라사상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의 신앙과 생활이 변화되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종말적인 희망이 일어난 반면 디아스포라에서는 영혼불멸이라는 헬라사상에 접합되었다. 디아스포

33) Eduard Lohse, *신약성서배경사*, 박창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102.

34) Ibid., 102-103.

35) Ibid.

36) Ibid., 104.

라에서는 종말론과 특히 메시아 대림 사상이 후퇴되었다. 그들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가 이방 나라에 나타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³⁷⁾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생활과 예배는 비유대적인 세계 속에서 주목받았다. 회당에 모여 성서를 낭독하고 기도를 하며 시편을 낭송하고 여러 가지의 설교를 행하는 것이 많은 비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삶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논구하는 철학자들의 집회로 보였다. 그래서 회당 주변에는 때때로 매우 품위 있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의 말을 듣기 위하여 모여 들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할례 때문에 유대교로 넘어와 개종자가 되고 의식적인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데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계명-특히, 안식일 규정과 음식 규정 및 도덕적인 교훈-만을 지키고 한 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만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여겨졌다(행 13:43, 50; 16:14; 17:4 등 참조)³⁸⁾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전쟁 노예 혹은 상업을 이유로 사방에 흩어졌지만 복음 선포를 위한 전초대원들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열방 중에 흠을 것을 경고하셨다(레 26:33; 신 4:29; 28:64; 30:3; 렘 9:12-16; 겔 12:15).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열방에 흩어지게 되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유대민족의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해 온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는 복음전도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글라서(Arthur F. Glasser)는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명명한다.³⁹⁾ 사도시대 교회가 해외 선교활동을 잘 하도록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교 도구이며 이들을 통한 선교 열매는 기독교회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 커다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회당’이나 ‘70인역’ 등은 초대교회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쓰였다.

37) Lohse, *신약성서배경사*, 105.

38) Ibid., 106.

39) Arthur F.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임운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224.

2. 회당: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며, 회당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는데 이는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어서 선교를 위한 가르침, 선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⁴⁰⁾ 즉 순수한 유대인들, 개종자들(정식으로 할례받은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할례를 받지 않은 나사렛이나 경건한 예배자들)은 모두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랍비인 사도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우선적으로 회당을 찾은 것은 그곳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회중들 속에 가끔 고넬료와 같은 로마 군인들이 끼어 있었다. 또 다른 군인은 자기가 근무한 이스라엘의 종교에 깊이 감명을 받은 나머지 그들을 위하여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 주기도 했다(눅 7:5).

회당제도는 유대인들이 다른 신앙을 가진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그들은 타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만 했었다. 회당제도는 디아스포라에서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도 빠르게 만들어졌다. 예루살렘,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같은 대도시에는 회당이 여러 개 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율법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을 교육했다. 율법과 회당의 결합은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해서 그들은 회당이 본래부터 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래 전부터 모든 곳에서 모세를 전파하여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낭독하는 선포자들이 있었다고 말한다(행 15:21).⁴¹⁾

회당은 각 지역에서의 유대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세 명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회당 공동체의 외적 사무를 관할하였다. 회당의 직원으로는 단지 관리인과 소사만 있었다. 공동체의 명망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출된 회당장은 예배드리는 책임을 맡았으며 집회의 과정이 율법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였다(눅 13:14 참조). 그는 기도를 인도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들을 정해서 참석자들을 권고하여 적절한 설교를 하게 하였다(행 13:15 참조). 회당지기는 두루마리를 가져가고(눅 4:20 참조) 회당 관리인으로부터 기도와 찬양, 그

40) 장훈태, *초대교회 선교*, 26-27.

41) Lohse, *신약성서배경사*, 136.

리고 설교를 하도록 선발된 공동체 회원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어린 아이들의 문답 공부도 가끔 그에게 맡겨졌다. 만일 율법을 범한 공동체 회원에게 채찍 태형(고후 11:24 참조)과 같은 형벌이 내려질 때는 회당지기가 이를 집행하였다.⁴²⁾

회당에서의 예배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성서를 낭독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과 사제의 축복은 성전 의식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성소가 파괴된 이후 회당에서는 일곱 촛대가 본래는 성전에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세웠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였으며(행 3:1 참조)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때부터 회당은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한 기도하는 곳, 즉 '작은 성소'라 불리었다(겔 11:16 비교). 안식일에는 물론, 평일 특히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대축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들었다.⁴³⁾

회당은 교육의 장소로서 학교이기도 했다. 그래서 회당은 학당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회당은 교육과 예배를 위한 곳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회당 옆에 고유의 학당이 따로 있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한 선생님께서로부터 율법을 읽고,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초급학교 외에도 회당이나 학당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였다. 율법학자들은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전수하였다. 이처럼 회당은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 모여 자치 단체의 일들과 공동체의 생활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⁴⁴⁾

회당은 교육의 장소였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드리던 예배의 목적은 보다 제한적인 의미에서는 공예배도, 봉헌도 아닌 종교교육이었다. 필로는 회당을 '교육의 집'이라고 부른다.⁴⁵⁾ 신약성서에서 회당과 관련된 특이한 용어는 디다스케인(didaskein), 즉 '가르치다'이다(마 4:23; 막 1:21; 눅 4:15 대조). 귀네버트(C. Guignebert)는 회당을 '경건의 모임터', '종교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너무 많아서 그 당시의 '통속

42) Lohse, *신약성서배경사*, 137.

43) Ibid., 138-139.

44) Ibid., 142.

45) Philo: *Life of Moses* III, 27을 William Barclay, *고대세계의 교육사상*, 유재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24에서 재인용.

적인 신앙의 대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⁴⁶⁾ 회당은 율법이 해석되고 설명되고 또 응용되던 중심지였다.⁴⁷⁾ 회당의 탄생은 "사회와 종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혁명 중의 하나"였다(Ben-Sasson). 회당은 기독교회의 모형이 되었으며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신앙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성전에서 백성의 죄를 증재하는 제사장직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서기관, 학자, 랍비, 지혜의 법칙, 토라 연구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하여 율법을 습득한 개인은 제사장이나 증재자 없이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율법적 정결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여 갔다. 이처럼 회당은 학문적 전통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헌신적으로 토라를 연구했다.⁴⁸⁾

회당은 유대인들의 경건은 물론 이방인의 경건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방인들의 신조와 의식에 불만족스런 사람들은 유대 회당과 이 회당의 윤리적인 유일신론으로 눈을 돌렸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회당의 준회원이 되어 예배에 참여하였으며, 간혹 회당을 지은 경우도 있었다(눅 7:2-5). 최초의 기독교 전도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지닌 이방인들이었던 것이다(행 13:42-48; 14:1-2).⁴⁹⁾ 이들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자유롭게 회당 예배와 공부에 참여하였다. 유대인들은 이들 이방인들을 잠재적인 유대인 개종자로 인정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았지만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자연히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완전한 유대인 신분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했고 율법을 준수하는 엄격한 계율을 받아들여야만 했다.⁵⁰⁾ 이와 같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신앙은 물론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는 유대인으로 개종하기까지 삶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회당은 기독교의 도래를 준비하는 데 괄목할 만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지중해 연안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던 회당들이 교회의 묘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기독교 예배의 제도상의 형식을 제공하였고 심지어는 기도

46) C. Guignebert, Henry Berr, *The Jewish World in the Time of Jesus* (New York: Dutton, 1939), 75. Barclay, *고대세계의 교육사상*, 24에서 재인용.

47) Ibid.

48)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276.

49) Bruce M. Metzger, *신약성서개설*, 나채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58.

50)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276-277.

문과 예식 자체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⁵¹⁾ 그러기에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어서 선교를 위한 가르침, 선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며,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된 것이다.

3. 70인역: 복음전파의 유용한 도구

디아스포라 유대교는 기독교회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을 통하여 로마 전역에 새로운 신앙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교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전파를 위해 가장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였으니, 즉 구약의 헬라어 번역이다.

디아스포라 유대교의 고민 중 하나는 이들 중에 많은 숫자가 선조의 언어를 망각했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브리어 경전을 이들이 이해하는 언어, 즉 동방에서는 아람어로, 그리고 서방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해야만 했다. 알렉산더의 정복 후 지중해 연안에서는 헬라어가 통용되었다. 이집트인, 유대인, 구레네인, 그리고 로마인들조차 헬라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⁵²⁾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행해진 이 번역은 '셍투아진트', 혹은 '70인역'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경전을 번역할 임무를 받았던 유대교 학자들의 숫자 때문이다. 이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번역한 후에 서로의 번역이 동일함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70인역'은 초대 교회에 아주 중요했다. 바로 이 번역판이 신약 기자들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이 때문에 초대교회의 용어들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Christ)'라는 명칭 자체가 '기름부음을 받은 자(Anointed One)' 혹은 '메시아(Messiah)'를 가리키는 70인역의 용어이다.⁵³⁾

70인역의 언어와 내용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헬라주의 세계로 진출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주었다. 희랍어 구약성서는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잇달아 생겨난 기독교회의 성서가 되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의 뜻과 계명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서 계시되었다. 구약성

51) Metzger, *신약성서개설*, 58.

52) Gonzalez, *초대교회사*, 27.

53) Ibid.

서의 희랍어 번역을 통하여 형성된 언어로 기독교의 설교는 처음에는 회당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비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포될 수 있었다.⁵⁴⁾

70인역 헬라어 성경 사용은 회당과 더불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위한 종교생활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며 이방인들을 이끌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신약성경 시대의 교회가 세계로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대교에서 70인역 헬라어 성경 사용을 증지했던 일을 봐도 이 성경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를 볼 수 있다.⁵⁵⁾ 이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사용한 일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와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제 4 절 초대교회 선교배경과 영락교회 선교배경

지금까지 초대교회 선교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복음전파의 대로를 열어준 당시 로마의 정치환경과 종교선택의 자유를 주는 등의 관용은 선교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공용어인 헬라어는 복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흠어진 유대인들은 이방선교의 전초대원으로, 그들이 세운 회당은 이방선교의 전초기지로 그리고 70인역 성경이야말로 복음전파의 유용한 핵심 도구였다.

그렇다면 영락교회가 선교를 하는 이 시대의 상황과 영락교회가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선교 배경은 어떠한가?

첫째, 영락교회가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중국을 볼 때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졌던 로마제국의 모습이 떠오른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 곳이다. 한국교회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이다. 문화혁명 이후 굳게 닫혔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 나라이다. 물론 선교사들이 가명을 쓰고, 비자를 떳떳하게 받지 못하고, 이메일 내용도 검열당하고 직접적인 선교 용어나 기독교 신앙 용어를 쓰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은 있으나 현재 활발히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락교회의 해외 선교에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집중지역 중의 하나인 인도네시아 역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나라이다. 약 90퍼센트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국가

54) Lohse, *신약성서배경사*, 113.

55) 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79), 60.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복지시설 등을 세우는 일은 물론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 신학교를 세우는 일 등이 진행되고 있다⁵⁶⁾. 물론 지역에 따라 교회를 세울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지역을 피한다면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 외에 인도, 러시아, 칠레 등은 비자 발급에 불편을 겪기도 하지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전파를 위한 공용어인 헬라어가 있어서 유용하게 쓰인 것처럼 오늘날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다.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하든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크게 유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만나는 디아스포라와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를 직접 주고받으며 복음을 전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 인도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선교지 즉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칠레 등은 모두 자국어 사용하기에 현지어를 배워야 한다.

영락교회는 선교사를 현지에 파송하기 전에 총회를 통해 선교 훈련을 받게 하고, 이어서 OM선교회와 연결하여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선교훈련을 겸한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한다. 그런 후에 선교 현장에 파송되어 2년간은 집중적으로 현지 언어 훈련만 받게 한다. 현지 언어 구사능력을 증시여기는 본부의 이러한 의지의 결과로 영락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현지 언어 사용능력이 우수하다.⁵⁷⁾

셋째,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대원으로, 이들이 세운 회당이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다. 중국엔 조선족이 많고, 조선족 교회들도 많다. 러시아엔 고려인이 우리말과 현지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선교 대원으로 쓰임 받기도 한다. 특히 중국 선교 현장에 세운 신학교의 교수들의 절반가량과 신학생들의 1/3이 조선족이다. 영락교회의 부목사들이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조선족 교수나 신학생들 다수가 통역이 가능하므로 수업진행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 이들 신학생들 중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북한 출신들이 많기에 자연스럽게 북한선교에 관심이 높다. 영락교회는 이들의 북한선교 열의가 식지 않고 실천되도록 협

56) 싱가포르에 파송된 손중철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비롯해 신학교와 대형 농장까지 세웠다.

57) 2년간의 언어훈련기간을 마치면 본부에서 방문한다. 그리고 언어훈련을 지속해야 할지 끝내도 좋은지를 판단한다. 때론 1년간 언어훈련을 받은 후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현지 언어가 배우기에 쉬운 경우가 그러하다. 그럴 경우엔 선배 선교사의 조언을 통해 결정한다.

력하고 있다. 또한 영락교회가 세운 한인교회가 세계 전역에 흩어져있고, 파송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도 여럿 있으니 이들 교회와의 연합을 도모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70인역 성경이 복음전파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영락교회 해외선교지역에도 이미 현지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신학 서적들과 설교집들이 출판되어 있다.

제 3 장 바울의 선교전략

본 장에서는 전장에서 살펴본 초대교회 선교 배경을 바탕으로 사도바울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선교전략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핵심적인 선교전략이 무엇인지, 그 전략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영락교회의 선교전략을 논함에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제 1 절 선교전략의 필요성

선교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전략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러한 전략의 개념을 선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전략의 개념

전략은 군사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 말은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일들이 현재의 상태와 다르게 전개될 때와 장소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주요한 마을이나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며 사업가들에게는 거래량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다.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동향들과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는 다음과 말한다.

어느 특수 단체가 결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동의한 수단

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훌륭한 전략이란 광범위한 원칙과 특별한 작전에 관심을 두지만 그러나 정한 목적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정한 목적이 없거나 가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전략은 불필요하다.⁵⁸⁾

전략은 전술과는 다르다. 전략은 일반적인 선교계획과 그 계획이 기초로 삼고 있는 원칙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반면에 전술은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선정된 목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과 방법들을 다루는 것이다.⁵⁹⁾

2. 선교에 있어서 전략의 필요성

모든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어떤 문제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략이나 여러 전략들을 세우게 된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매우 무의식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조직들은 그들의 전략들을 표준적인 접근방법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광순은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선교의 대상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은 민족과 국가 모두가 다. 복음의 바깥에 있는 세계이면 민족과 언어 그리고 문화에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선교의 대상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선교이다.⁶⁰⁾

선교를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해야 할 대상이 파악되었으면 선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선교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교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선교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세속적인 일로 또는 세속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스러운

58) C. Peter Wagner, *Frontiers in Missionary Strategy* (Chicago: Moody Press, 1978), 17.

59) Edward R. Dayton and David A. Fraser, *세계선교의 이론과 전략*, 박선희, 김종일, 이요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1), 43-45.

60) 이광순, "선교와 세계화," *교회와 신학* (1995): 547.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시도들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전략을 갖고 현장선교를 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전략과 방법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선교를 위한 인적 자원이나 돈, 시간 모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교에 있어서 전략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 전략은 선교사역의 원칙을 중요시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선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¹⁾

첫째, 불확실한 미래에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진척시키고자 할 경우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략은 선교의 방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선교회 조직과 교회에게 선교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을 도와준다. 셋째, 전략은 선교에 있어서 방향의 일관성을 견지하게 한다. 또한 전략이 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넷째, 전략이 있음으로 선교의 추진 상황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선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선교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긴급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부터 배분하게 한다.

전략을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다. 선교에 목표가 없다면 전략은 개발될 필요가 없다. 선교의 목표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선교의 목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선교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마 28:18-20).

피터 와그너는 성경 중심, 효율성, 적응성의 삼대 요소를 갖추어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⁶²⁾ 여기서 성경 중심이라 하면 인위적이거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선교여야 한다는 말이다.

곽선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6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성령은 당신의 사람들을 파송한다. 둘째, 성령은 방언으로

61) Dayton and Fraser, 세계선교의 이론과 전략, 56.

62) C. Peter Wagner, 기독교 선교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2.

나타난다. 셋째, 성령은 협소한 민족주의 장벽을 극복케 한다. 넷째, 성령은 이기주의를 극복케 한다. 다섯째, 성령은 고난을 선교로 해석케 한다. 여섯째, 하나님의 선교 작전 계획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⁶³⁾

효율성은 선교 자원에 관한 것으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의 수단을 말한다. 그리고 적응성이란 시대적인 변화에 관계된 것으로 효율성과 적응성은 선교의 수단과 방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MARC(Missions Advanced Research and Communication Center) 중심의 선교 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비록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풍작을 낳는다고 단순하게 억단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영농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⁶⁴⁾

그렇다면 선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이광순은 현대 선교전략에서 고려할 점 가운데 다음과 같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첫째로 꼽았다.

대부분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완전한 민주주의가 행해지는 나라는 거의 없고, 인권이 보장되지도 아니하며, 경제적으로도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가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어떤 나라에는 선교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어떤 나라에는 조건부로 입국이 허가되기도 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추방되는 나라도 있다. 그 중 많은 나라들이 ‘투표에 의하지 않고 총탄을 통하여 권력을 잡은 독재자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⁶⁵⁾

선교 현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선교사들이 비자를 발급받는 문제, 안전 문제 등 가장 원초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치, 경제적 상황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교전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피터 와그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63) 광선희, “성령과 선교,” 한국교회 100주년 선교대회 보고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교회 100주년선교대회 준비위원회, 1983), 85-87.

64) Dayton and Fraser, 세계선교의 이론과 전략, 345.

65)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84.

첫째, 우리는 전통과 문화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또 선교 전략도 과거의 것을 반복하는 데 만족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는 훈련을 받아 보지 못했다. 선교사들이 수집해 놓은 통계자료는 많지 않으나 그것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이는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필요에 따라 전략을 세워 왔다. 필요하고 어느 곳에라도 가능한 곳이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면에서는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곳에 인력과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흔히 실패의 원인을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 선교에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언어를 배우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며 전하지 않고 복음이 확산되지는 않는다.
 다섯째, 우리는 제자 삼는 일 대신 좋은 활동을 하는 것을 만족해 왔다. 선교사가 하는 활동이 나쁜 일일 리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건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장 좋은 일 즉,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 소홀히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⁶⁶⁾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교의 목표가 분명하기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효과적이고, 올바른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러기에 성경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응성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바울이다. 그의 선교사역을 볼 때에 분명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도바울이 사용했던 선교 전략을 소개하고, 그 선교 전략의 우수성을 증명한 후에 영락교회의 선교 전략을 세워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바울의 선교전략에 대한 선교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고 그의 핵심 선교전략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전략

사도바울은 다양한 선교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 전략들을 활용하였다. 그가 사용한 여러 가지 선교전략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선교전략과 여러 선교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밝혀보고

66)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285-286.

바울의 대표적인 선교전략에 비춰서 영락교회 선교개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동역자들과의 협력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는 철저히 동역을 통한 선교임을 알 수 있다. '우리'라는 표현이 동역의 선교였음을 잘 보여준다(행 16:10, 13, 16, 28, 37 등).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동역선교를 하도록 하였다. 물론 마가 문제로 인해 불화하기도 했지만 결코 동역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⁶⁷⁾

바울의 동역자들은 다양하였다. 레위인 바나바, 한쪽으로는 유대인의 피를 받은 디모데, 헬라인 디도, 유대인이 아닌 의사 누가,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행 18장),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아블로, 마가와 실라 등 그의 동역자를 모두 열거하기도 어려우며, 그 출신도 각계각층이다. 그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였다.⁶⁸⁾ 이러한 모습은 브루스(F. F. Bruce)의 표현처럼 "자석의 주변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바울 주위에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모여 들었다.⁶⁹⁾

만일 바울이 혼자서 선교활동을 했다면, 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여러 동역자가 없었다면 바울이 죽은 후의 교회는 누가 인도하며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이어져 갔겠는가.⁷⁰⁾ 바울의 선교방법은 신앙적 영웅심에 의한 개인의 선교활동이 아니라 동역의 선교였다.

퍼브즈(Purves)는 바울의 동역자를 통한 선교에 대해 "그(바울)는 외로운 전도자가 아니라 다수의 선교사들을 지휘한 사령관이었으며 선교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동역자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였다."⁷¹⁾ 바울은 마치 '사령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필요에 따라 그의 동역자들을 움직이게 하였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활동을 살펴보면 철저한 팀사역을 통한 협력 선교임을 알 수 있다.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의 교육 사역은 바나바와 함께 협력한 활동이었고,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 마가와 동역하였고, 2차 선교여행 이후 그는 다른 동역자 실라

67)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68.

68) Ibid., 85-86.

69) F. F. Bruce, *바울 결의 사람들*, 윤종석 역 (서울: 기독교지혜사, 1993), 8.

70) 박창환, "바울의 선교 원칙," *교회와 신학* (1996): 18.

71) George T. Purves, *Christianity in the Apostolic Ag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29), 102. Kane, *기독교 세계선교사*, 124에서 재인용.

와 함께하였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으며, 특히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행 18:2) 부부는 그와 함께 거하며, 장막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행 18:1-3). 3차 선교여행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한 자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베틀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등이며, 밀레도에 초청받은 에베소교회의 장로들 역시 에베소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들이었다. 그 외에도 다른 서신서에서 발견되는 이름이 있는데, 에바브라, 데마, 에바브로디도, 아킵보, 아블로, 디도, 뵤뵤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무려 27명이나 되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서 브루스는 바울이 탁월하게 동역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과 관련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사람들이 신약성경에 약 70명 나온다. 물론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친구들까지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바울은 또한 비그리스도인과 우정을 맺는 데도 은사가 있었던 것 같다. 에베소의 아시아 관원들(행 19:31)이나 백부장 율리오(행 27:3, 43)같은 사람들이 그 좋은 예이다. 바울은 별로 불품은 없었을지 몰라도 따뜻하고 개방적이며 친근한 성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었다.⁷²⁾

여하튼 바울은 단체 행동을 확고히 믿는 자로서 기질로나 교육로나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전략가였다. 그래서 날도 바울에 대하여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훈련시켰으며, 그들을 교회 건축을 위한 일꾼으로 내어 보내기도 하였다(골로새의 에바브라 등)”고 소개하였으며,⁷³⁾ 케인(Herbert J. Kane)도 바울을 가리켜 “사령관의 자격을 가지고 작전을 총괄적으로 지휘한 자”로 표현하면서 “바울은 외로운 전도자가 아니라 다수의 선교사들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으며, 선교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동역자들의 수는 날로 증가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⁷⁴⁾

72) Bruce, *바울 결의 사람들*, 8-9.

73)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London: Penguin Books Ltd., 1990), 21.

74) Kane, *기독교 세계선교사*, 124.

이와 같이 바울은 항상 그의 동역자들, 특히 현지에서 만난 동역자들을 통하여 그의 선교 사역을 계속 진행하여 나갔으며, 심지어 옥중에서 만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까지도 “사랑받는 형제로”(몬 1:16)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자신의 친필로(몬 1:19)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절히 증거하고 있다.

그는 팀으로 사역할 때의 많은 유익한 점들을 익히 알고 있었다. 바울의 팀사역에 관하여 피터스(Peter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은 상호 신뢰와 존경으로 협력하고 일단의 복음사역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 팀사역은 심리적으로도 유익한 것이었다. 팀은 그들이 이교주의와 직면하게 될 때에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팀사역은 또한 단독 사역자보다 팀사역으로 말미암는 효과로 인해 전체 공동체에 대한 복음침투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협력을 통한 선교전략을 가지고 있었기에 보다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⁷⁵⁾

이광순 역시 바울은 혼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려 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동역자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한다.⁷⁶⁾

탁월한 저서인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서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올로그(Ollrog)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첫째로 바나바, 실라, 그리고 디모데로 구성된 가장 친밀한 집단, 둘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도와 같은 독립적인 동역자들, 셋째로 에바브라디도,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가이오와 야손과 같은 지역교회들의 대표자들이다. 이들과의 동역은 바울선교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다.⁷⁷⁾ 바울은 동역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는 효율적인 전략을 택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 도시중심의 선교

바울은 로마제국의 대도시들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였다.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

75)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72), 225.

76)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85-86.

77)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변천*,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CLC, 2000), 208-215.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물론 에베소에서는 3년 이상이나 체류하였으나(행 20:31) 필요 이상으로 머문 것은 아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준비가 되고 선교사역에 있어서 바울을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는 다른 곳으로 향하였다.⁷⁸⁾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으며 빌립보는 그 지역의 행정중심지였다. 에베소도 소아시아의 대도시였으며 데살로니가도 큰 상업도시였다. 바울은 제한된 시일 안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겠다는 의도에서 인구가 집중된 곳, 보다 개방적인 곳, 공용어를 잘 이해하는 곳인 도시를 우선적으로 전도했다.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변과 사이의 지역들은 도시교회들의 전도활동에 의해 이차적으로 복음화될 수 있다고 계산한 듯하다. 이와 같은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보다 신속한 복음화를 가능케 한다.⁷⁹⁾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 바울은 유명했던 로마제국의 도로들을 매우 익숙하게 알게 되었다. 이러한 도로를 따라서 제국의 중요한 대도시들이 위치해있고 바울은 그 도시들을 선교하는 일에 주력했다. 그러나 바울이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다. 로마제국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도시들만을 선별하여 복음을 전했다. 예컨대 그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여행하는 동안 도상에 있는 암비블리와 아블로니아는 거처가기만 했을 뿐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행17:1).⁸⁰⁾ 이는 효율적인 선교를 위한 중요한 바울의 선교방법이 분명하다. 이에 관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헬라사회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도시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일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시를 중심으로 헬리어와 헬라문화를 보급하여 온 세계를 하나의 대도시로 만든 일이다. 도시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와 종교, 경제의 중심지이므로 여러 민족이 모여 있는 밀집지역이다. 특히 헬레니스틱 도시들은 어디를 가든지 언어가 통일되어 있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⁸¹⁾

78)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86.

79)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8), 35-36.

80) Kane, *기독교 세계선교사*, 113.

81) 권오현, *바울의 생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348.

바울은 당시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의 문화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가 영향 받은 도시적 분위기를 그대로 도시 선교에 이식시켰다. 당시 도시는 국가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기에 도시가 한 국가 이상으로 문화와 상권의 교류 중심지이기도 했다. 특히 그리스는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국가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다.⁸²⁾

바울의 선교사역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의 하나는 영향력 있는 도시들에 대한 그의 강조 내지는 집중이었다. 사도들은 보통 그 사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교회를 설립했다. 사도행전은 여러 도시를 거쳐서 이루어진 바울의 도시선교의 집중과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로마는 위에서 언급된 이유들뿐만 아니라, 이 도시들은 다양한 인종 그룹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모두 영향력 있는 중심지였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선포가 주위 지역에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여행했던 것이다.⁸³⁾ 이런 도시들에서의 바울의 선교사역의 결과로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행 13:49).

바울은 로마제국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는 그러한 도시들이 복음의 빛을 주변지역에 전파하는데 있어 전략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며 1년 남짓한 세월을 보낸 바 있는 안디옥을 기점으로 출발하였다. 지도를 살펴보면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이 도시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알 수 있다.⁸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 제국에서 제3의 규모를 자랑하던 안디옥은 여러 종족들이 뒤섞여 사는 도시였고, 동서의 상업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 나아가기 시작한 기독교 신앙의 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안디옥은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가 사방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전략 기지였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은 팔레스타인 경계선에 인접해 있는 도시로서 복음전파의 진원지에 가까이 위치한 까닭에 모교회와도 지속적인 연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희랍,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⁸⁵⁾

82) 민석홍, *서양사 총론* (서울: 삼양사, 1993), 50.

83) 임영효, *사도행전에서 의 선교와 교회성장*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1997), 91.

84) Herbert J.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이재범 역 (서울: 나단, 1988), 112.

사도바울의 전도원칙은 모든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들 혹은 세 개의 중요한 지역에 신앙생활의 거점을 설립하여 다른 모든 지역에 복음을 고루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의 교회를 신속히 빛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⁸⁶⁾ 그뿐만 아니라 타이센(Gerd Theissen)의 지적처럼 인구가 새롭게 늘어남으로 발전되어 가는 도시들은 전통적인 관습에 얽매인 지방보다는 새로운 메시지에 대하여 더욱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도시중심의 선교를 지향한 것이다.⁸⁷⁾ 사도바울은 철저히 효율성에 입각한 선교전략에 의해 움직였다.

서정운은 그의 저서 *교회와 선교*에서 바울이 취했던 선교전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으며 빌립보는 그 지역의 행정중심지였다. 에베소도 소아시아의 대도시였으며 데살로니가도 큰 상업도시였다. 바울이 도시 우선으로 전도한 것은 제한된 시일 안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겠다는 의도에서 인구가 집중된 곳, 보다 개방적인 곳, 공용어를 잘 이해하는 곳인 도시에 힘을 쏟은 것이다.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변과 사이의 지역들은 도시 교회들의 전도활동에 의해 이차적으로 복음화될 수 있다고 계산한 듯하다. 이같은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신속한 복음화를 가능케 한다.⁸⁸⁾

데이비드 보쉬 또한 바울이 대도시 중심의 선교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거의 전적으로 순회 설교자였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몇몇 장소들에서 그가 오랫동안(고린도에서는 일년 반 정도, 에베소에서는 약 3년간 머물렀다) 머물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전략적인 중심도시 선교를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는 각각이 일정한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수도에 집중한다. 마게도냐를 위해서 빌립보(빌 4:15),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위해서 데살로니가(살전 1:7), 아가야를 위해 고린도(고전

85)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112.

86) R. Allen, *바울의 선교방법론* (서울: 베다니, 1993), 32.

87) Gerd Theissen, *Sociology of Early Palestinian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117.

88) 서정운, *교회와 선교*, 35-37.

16:15: 고후 1:1) 그리고 아시아를 위해 에베소(롬 16:5: 고전 16:19: 고후 1:8). 이 대도시들은 교통, 문화, 상업,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주요 중심지이다.⁸⁹⁾

알렌(Allen) 역시 사도바울이 세계적 상업 중심지에 교회를 설립했다고 말한다.

그 도시들은 각 지방의 리더로서 중요한 입장에 있었다. 그 도시들은 모든 정책 또는 사상적 동향의 으뜸이었다. 그들은 때때로 리더로서의 지휘를 고수하기 위해 어이없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의 식으로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로서 타지방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체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상정하고 전적으로 사소한 관심사들에 몰두해 있는 소지방 마을보다 더 광활한 세계를 조망했다. 따라서 그들은 외부 세계에 책임을 인식하고 있던 화합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경계에 인접한 루스드라와 더베의 이주자들까지 그들이 주위의 미개한 지방까지 뻗쳐 나가야 할 문명의 개척자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광범위한 생활을 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에 국한된 생활을 할 수 없었다.⁹⁰⁾

알렌은 계속해서 바울의 도시중심의 선교전략을 선교 전략상의 요충지 장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전략상의 요충지들을 장악하는 것은 모든 지역에 침투하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다.⁹¹⁾ 그가 이와 같이 확고한 선교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상의 요충지들을 장악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3. 반응 좋은 곳에 집중하는 선교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들어도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반응이 좋은 곳에 집중하는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바울은 임박한 재림을 염두에 두고 시간절약에 힘썼다. 자기가 하는 일만이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군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지 꼭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였기에 남이 닦아 놓은 터 위에다 집을 짓는 에너지 낭비는 안하기로 작정하였다(롬 15:20, 고후 10:13, 15, 16).

89)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변천*, 208-215.

90) Allen, *바울의 선교방법론*, 36.

91) Ibid., 38.

같은 복음을 여러 사람이 여러 지방에서 빨리 전해서 예수 재림 이전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 바울이 또 가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고 보았던 것이다.⁹²⁾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의 설교에 반응이 약한 곳보다 반응이 좋은 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설 때까지 체류하면서 돌보았다.

복음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마13장)를 통해서 지적하신 바 있다. 여기서 문제는 토양이었던 것이다. 좋은 토양은 많은 결실을 맺었으나 나쁜 토양은 그 결실이 보잘 것 없거나 전혀 없었다. 또한 좋은 토양이라 할지라도 확실히 동일한 결실을 낸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등의 차이가 있었다.⁹³⁾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토양의 비유'라 함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을 한다.⁹⁴⁾ 농부로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가장 좋은 씨라도 옥토에 뿌려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길 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많은 노력과 소원과 기도를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비유의 교훈은 씨를 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추수를 기대하려면 뿌리는 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방법에 대해 알렌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복음전파를 거부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었다. 그는 한 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의 설교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년이고 설교를 계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까지 사람들을 인도한 후에는 그들 자신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들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는 그들로부터 떠났다. 복음을 참되게 전파함에 있어 이러한 점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된 가르침에는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⁹⁵⁾

반응이 좋은 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선교전략이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

92) 박창환, "바울의 선교 원칙," 17-18.

93)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117.

94) Wagner, *기독교 선교전략*, 38.

95) 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Eerdmans, 1964), 75.

지를 절약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수용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측면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차이는 도시와 시골, 진보된 사회와 미개사회, 교육받은 사람들과 문맹자들 간에도 나타난다. 또한 이는 선교의 모든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⁹⁶⁾

회당에 모인 회중들은 예외 없이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되었다. 즉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은 따르는 자들과 진리를 거슬러 그에게 대적하려 했던 자들이다. 전자는 대체로 개종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으며, 후자는 유대인들로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관하여 말할 때까지는 주의 깊게 경청하다가도 일단 나사렛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증거하려 하면 바울을 반박하고 나서서 폭동을 일으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무리였다.

바울은 여러 차례나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으며, 한 때 그는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던져진 적도 있었다(행 14:19). 그 사건이후 바울은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행 13:46). 이에 이어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를 비방하고 욕설을 퍼부을 때 그는 옷을 털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행 18:6).

그는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며, 기꺼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완강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핍박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했으므로 다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⁹⁷⁾

반응 좋은 곳에 집중하는 선교는 예수 재림의 임박성으로 인한 시간의 제한성, 그리고 복음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너무도 중요한 전략이었다. 이에 관하여

96) Donald McGavran, *하나님의 선교전략*, 이광순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3), 367.

97)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118-119.

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선교운동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빈번히 부인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땅, 건물, 또한 각종 제도상의 제약에 의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곳에 몇 년이고 졸곧 머물러 있음으로서 언제라도 추수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적절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보다 결실 있는 현장으로 옮겨갈만한 도덕적인 용기가 결여되어 있다.⁹⁸⁾

케인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선교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선교현장에서의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선교의 효율성보다는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사도바울의 선교전략을 잘 연구하여 선교현장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98)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119.

제 4 장

영락교회의 선교현황

지금까지 초대교회 선교 배경과 그 배경 위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영락교회의 약사와 선교정책, 그리고 선교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영락교회가 선교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교를 위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려 한다.

제 1 절 영락교회 약사

1. 신앙과 해방공동체로 세워진 영락교회(1945-1949)

영락교회는 '탈출 신앙공동체'이다. 마치 애굽에서 압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자유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듯, 영락교회는 8.15 광복 후 공산주의 세력이 점령한 38선 이북, 고향 땅을 뒤로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하한 '월남 성도'들로 결성되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섰던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이다.⁹⁹⁾ 그는 신의주 제2교회를 목회하던 중 남하하여 영락교회의 전신인 베다니 전도교회를 설립하였다.

한경직 목사는 정주 오산학교와 송실전문학교를 거쳐 미국으로의 유학길에 올라 엠포리아 대학(Emporia College)과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Seminary)를 졸업하였으나, 곧 폐결핵을 앓게 되었고, 투병생활을 하던 중에 전 생애를 목회자로서의 길을 갈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 후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하며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하에서 실의와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있던 교인들을 향해 위로와 용기를 담은

99) 영락교회 50년사 (서울: 영락교회, 1998), 55.

희망의 말씀을 선포했다.¹⁰⁰⁾ 그뿐만 아니라 교회 부설 기관으로 '보린원'을 세워 가난하고 소외된 자,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거두어 보살피는 사회사업을 시작했다.¹⁰¹⁾ 그후 한경직 목사는 우여곡절 끝에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1월 신의주를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목회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에 도착하여 중구 영락동 2가 69번지, 현 영락교회 부속건물 위치에 있던 일제의 천리교 경성분교 건물 내에 방 하나를 얻어 거처를 삼았으며, 그후 그 자리에 영락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호와 이레'였다.

1945년 12월 2일 주일 아침 '북한 탈출 성도 27인'이 천리교 경성분교 건물의 한경직 목사 거처에 모여 '베다니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다. 그후 1946년 새해로 접어들면서 월남 피난민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 월남인 중심의 '피난민 교회'인 베다니 전도교회를 찾았다. 이로 인해 베다니 전도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교인 수가 늘어났다. 1946년 말에는 유년부 어린이만 426명에 달했고, 1947년 1월부터 주일예배를 2부로 나누어 드릴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1946년 9월 20일 주일부터 농아인 전도부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락교회 안에 농아부가 정식 발족되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특수기관을 설립 운영하였다. 1946년 2월부터 '베다니 찬양대'가 발족되었고, 이어서 여전도회 조직인 부인전도회가 창립되었다. 특히 부인전도회는 청년실업인회와 연합해서 1946년 10월에 인천제일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전도열정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¹⁰²⁾ 영락교회는 부흥을 계속하여 창립 제1주년을 맞은 때의 교회의 통계를 보면, 출석교인이 장년 962명, 유년 476명, 총 1,438명, 헌금 총계는 당시 돈 784,553원 75전에 이르렀다.¹⁰³⁾

1948년 5월 9일에 남한만의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그날이 주일인지라 '주일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 끝에 다음날인 5월 10일에 선거를 치르게 했다. 같은 해 10월 '여수·순천반란사건'이라는 대규모의 좌우익 충돌사건이 발생하여 무고한 양민들이 피해를 입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100) *영락교회 50년사*, 55-56.

101) 당시 보린원은 고아원과 양로원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규모가 큰 사회봉사 기관이었다. Ibid., 58.

102) Ibid., 69-76.

103) Ibid., 78.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구국 전도운동을 전개했고, 이를 계기로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을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았다. 또 그 당시에 지리산 지역 복음화를 위해 교회를 개척하였다.¹⁰⁴⁾ 이 시기에 베다니청년회가 결성되었고, 보린원이 재건되었으며, 훗날 많은 목회자와 사회 지도자를 배출한 대광학교를 세웠다.¹⁰⁵⁾ 영락교회는 그 시기에 급속한 부흥을 경험하며, 전도열정으로 가득했고¹⁰⁶⁾ 모든 국민들과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2. 시련 속에 성장한 영락교회(1950-1965)

‘탈출 공동체’로 출발한 영락교회는 ‘6·25 전쟁’을 겪으며 다시금 커다란 시련을 맞이한다. 1950년 6월 4일 주일 석조전 예배당 입당식을 감격 속에 마친 후, 사경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지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전쟁 중에 두 명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김응락 장로와 김창화 집사가 그들이다¹⁰⁷⁾. 김창화 집사는 영락교회 고등부 반사이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수학 교사였다. 부속중학교 기독교학생회 지도교사로서 학생들의 신앙지도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당시 학교에서는 좌우익 학생들의 충돌이 빈번하였다. 김 집사는 북한에서 겪은 산 경험과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잔인성을 소상히 지적 폭로하였다. 그로 인해 김 집사는 여러 번 위협을 받았고 뜻하지 않은 폭행도 당하였다. 그러던 중 8월 1일 김 집사는 적색분자들에게 붙들렸고 8월 4일 사범대학 뒷산에서 총살당하였다. 시신은 그 자리에 가매장되었다가 한경직 목사가 귀경한 후 10여 명의 교우들과 같이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¹⁰⁸⁾ 김응락 장로는 서울 시민들이 피난길에 올라 남으

104) 영락교회 50년사, 94-96.

105) Ibid., 98-101.

106) 이 당시 영락교회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18개 교회를 설립하였다. 성도교회, 미암교회, 서대문교회, 금호교회, 청암교회, 동광교회, 답십리교회, 창신교회, 신당중앙교회, 충무교회, 장충교회, 동성교회, 후암교회, 용산중앙교회, 해방교회, 옥인교회, 성동제일교회, 홍제중앙교회 등. Ibid., 102.

107) 김응락 장로는 인민군 치하에 들어간 영락교회당에서 순교하였고, 그의 순교기념비는 영락교회 본당 옆에 세워져있다. 김창화 집사는 교회학교 반사로 활동하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의 기독교학생회를 지도하였고, YMCA 안에 고등부 성경반을 조직, 지도하는 중에 순교 하였다. 용인순교자기념관에서 김응락 장로와 김창화 집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볼 수 있다.

108) 영락교회 35년사 (서울: 영락교회, 1983), 123.

로 내려갈 때 교회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과 미쳐 피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9월 23일 국군이 맥아더 장군 지휘하의 연합군의 지원을 얻어 북상의 길에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날 김응락 장로는 교회를 둘러보러 나갔다가 퇴각중인 인민군들에게 붙들려 총살을 당하고 교회 뜰 앞에 시체로 묻혔다.¹⁰⁹⁾

한편 전쟁으로 인해 온 국민이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부산으로 피난 온 교역자들을 위해 특별 부흥회가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는 미국의 밥 피얼스(Bob Pierce) 목사¹¹⁰⁾ 등과 협력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전쟁으로 인해 수백 명의 피난 목사들이 헐벗고 굶주린 몸골로 갑자기 교회를 잃어 할 일 없이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도 큰 고통이었다고 한경직 목사는 그때를 회상한다.¹¹¹⁾ 피난 온 목사들의 문제는 한경직 목사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다. 비록 그 자신은 기독교구국회 일과 부산 영락교회 목회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할 일 없이 매우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 동료 목사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의 뇌리에서 떨칠 수 없었다.¹¹²⁾ 한경직 목사는 이미 이때부터 영락교회 목사라기보다는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사요,¹¹³⁾ 목사 중의 목사였다.¹¹⁴⁾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은 전시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를 받으라고 외치는 그의 설교는, 곧 구령 운동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 자체였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설교를 한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인이 되었다.

109) 최종고, *영락교회의 부흥* (서울: 한국문학사, 1974), p203-204.

110) 서울에서 전도집회를 열정적으로 했던 그는 6.26전쟁이 터지자 다시 내한하여 먼저 목회지를 잃고 절망하던 피난 목사들 400여명에게 일주일간 말씀을 증거했으며 새 힘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한경직목사의 말에 의하면 그는 목사의 신분으로는 전쟁중인 한국에 올수가 없어서 기독교 잡지사(에) 입사하여 종군기자로 한국에 나올 정도로 한국민을 사랑하고,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목사였다.(한송홍, *한경직의 생애와 사상*, p147-148)

111) *한경직 목사 성역 50년* (서울: 영락교회, 1986), pp52.

112) 김학수, "한경직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3, 83.

113) 백낙준, "사명의 참된 목자상," 김병희 편, *한경직 목사* (서울: 규장문화사, 1982), 128.

114) 강신명, "세계에서 성자로 불리는 목회자," 김병희 편, *한경직 목사* (서울: 규장문화사, 1982), 109.

한경직 목사는 부산에서의 특별 부흥회 이후에도 전국을 순회하며 대규모 부흥 전도집회를 주도했다. 그 당시 밥 피얼스 목사 외에도 도즈(G. Dodds)와 핀리(R. Finley) 등 세계적 부흥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¹¹⁵⁾ 특별히 밥 피얼스 목사는 전쟁고아들을 돕기 위해 '세계기독교선명회'¹¹⁶⁾를 조직하고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고통 가운데 있던 한국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희망을 심어주었다.

영락교회는 피난중에도 부산영락교회와 대구영락교회 그리고 제주영락교회 등을 세우며 피난지에서도 전도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보린원 사업을 계속하며 제주도에 분원을 두기도 하였고, 다비다 모자원을 개원 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갔다.¹¹⁷⁾

1월 7일 부산 고려신학교 강당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한경직 목사를 비롯하여 30여 명이 모였다. 다음 주일인 14일에는 대청동에 있는 '새들 고아원' 강당을 빌려 고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매 주일 교인수가 증가하여 얼마 못가서 평균 7백 명이 모였다. 1954년 3월 부산 영락교회를 경남노회에 가입시킬 때는 출석교인이 1천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되어 있었다.¹¹⁸⁾ 부산 영락교회 창립과 때를 같이 하여 대구에도 영락교회가 설립되었다. 1951년 2월 6일 남산동 최원명 집사댁에서 17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시작이다. 두 주일 후 YMCA 강당을 빌려 고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약 300명이 모였다.¹¹⁹⁾ 그후에도 대구 영락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피난 중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노아의 방주였다. 한편 제주도까지 피난을 떠났던 영락교회 성도들은 1952년 1월 6일 '평양냉면옥'에서 34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두 주일 후 대한청년단 회관 건물을 빌려 예배를 고정된 장소에서 드리게 되었다. 1952년 말 출석 교인이 600명을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 1954년 1월 제주 영락교회를 제주노회에 가입시키기 전 피난민으로 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건축헌금을 하여 하나님께 예배당을 헌당하였다.¹²⁰⁾ 이 기간에 보린원 본원은 부산에, 분원은 제주도에 두었으며, '다비다 모자원'

115) *영락교회 50년사*, 122-123.

116) 후에 '월드비전(World Vision)'으로 개명함.

117) *영락교회 50년사*, 127-131.

118) *영락교회 35년사*, 135-136.

119) *Ibid.*, 137.

을 새로 창설하였다.¹²¹⁾ 이는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영락교회는 전쟁 중에도 주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교회를 개척하고 개인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였고, 보린원과 모자원 등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했으며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열매를 거두었다. 이러한 통전적인 선교야말로 영락교회가 일찌감치 가지고 있었던 선교 방법이었다.

영락교회는 휴전 이후에 더욱 급속히 부흥하였다. 1964년의 재적교인은 9,938명, 출석교인은 7,435명으로 늘어 예배 시설을 확대하였다. 이 시기에 유선TV 수상기를 이용하여 예배를 중계했으며, 어린 유아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마련하였다.¹²²⁾ 영락교회의 이러한 급속한 부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한경직'이라는 영적 지도자의 탁월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설교능력, 청빈한 삶, 애국심, 시대감각 등은 아직도 많은 후배 교역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선교관이 나타난 1959년 10월 4일 그의 주일 설교를 이광순은 "통전적 선교관"이라는 평가를 내린다.¹²³⁾ 그 설교의 일부를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의 하신 일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간단히 생각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도의 사업입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둘째는 교육 사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가르쳤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깊은 종교의 진리와 도덕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씨뿌리는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셋째는 봉사의 사업입니다.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불러주어 주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오늘날도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지금도 교육 사업을 하십니다. 지금도 봉사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십니

116) *영락교회 35년사*, 139-140.

121) *Ibid.*, 134.

122) *영락교회 50년사*, 204-205. 교육관 강당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설치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이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최초의 일로서 세계기독교 선명회 총재인 밥 피얼스 박사의 기증에 의한 것이었다. 피얼스 박사는 이전에도 하몬드 오르간 한 대와 차임벨 한 대를 기증한 바 있다. *영락교회 35년사*, 188-189.

123) 이광순, *한국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5), 238.

다.

한경직 목사의 '통전적 선교관'은 영락교회의 선교관이 되어 현재까지도 통전적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¹²⁴⁾

3.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이끈 영락교회(1966-1983)

이 시기에 두드러진 특징은 평신도 운동이 활발했다는 것이다. 1956년에 조직된 장년면려회가 1964년에 이르러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평신도부(교육 2부)로 개편되었다. 이는 종래의 장년면려회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물론, 그 산하에 청년부, 중년부, 노년부 등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과 그밖에 출판, 문서에 대한 업무도 관장하는 폭넓은 활동부서로 출범하였다. 이밖에 상례부, 음악부, 친교부, 사회봉사부가 만들어졌고, 국내 개척전도, 산업전도, 학원전도, 해외선교사업 등을 관장한 전도부와 관리부, 재정부, 서무부 등이 조직되어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 교회 운영의 기본 방침 가운데 가장 중시하고 있는 점이 바로 평신도, 곧 일반 교인들의 조직과 훈련, 그리고 친교 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 교회적으로 일반 교인들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켰다. 이러한 평신도 운동의 활성화는 다양한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 더욱 성숙되어갔다. 더욱이 1969년 1월부터 세계의 교구로 나누어 교회행정과 목회의 효율성을 높였는데, 평신도 지도력을 활성화하여 구역장, 권찰 등이 교역자를 돕도록 했다.¹²⁵⁾ 그런 결과 영락교회는 1965-1970년 사이에 계속 성장하여 재적교인이 13,332명, 출석교인이 8,326명이었으며, 주일학교 출석 학생수는 4,043명에 이르렀다.¹²⁶⁾

1973년 1월 2일 한경직 목사는 영락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후임 박조준 목사가 담임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¹²⁷⁾ 은퇴 이후 한경직 목사는 국제적 모임에

124) 영락교회는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 보린원, 노인복지센터, 모자원, 애니아의 집 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다. 또한 영락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상업고등학교 등을 통하여 학원선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군선교, 병원선교, 해외선교 등에 통전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125) *영락교회 50년사*, 239-248.

126) *Ibid.*, 265.

127) 이날 원로목사 추대식에서 축사를 했던 김재준, 홍현설, 백낙준 등은 한결같이 은퇴 후에도 세계복음화의 기수로서 일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당부했다. 특별히 이날 백낙준 박사의 축

자주 초청되어 세계의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1973년 2월 한달 간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열린 국제전도협의회 강사로, 같은 해 6월 2주간에 걸친 일본 재일교포교회 연합부흥회 강사로, 1975년 1월부터 3개월간 미국에서 열린 세계 선명회 이사회 참석 및 재미 한인교회 집회의 강사로 가는 등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국제적 집회의 강사¹²⁸⁾로 섰다.

한경직 목사는 강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동시에 기독교 연합사업에도 많은 일들이 주어졌다. 아세아 교회 진흥원 원장(1973),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총재(1982-1984)¹²⁹⁾ 일도 감당해야 했다. 90세가 다 된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발족시켜 초교파적 연합운동의 길을 열었고,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1990)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사랑 나누기에 마지막 힘을 쏟았다.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는 중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의 입술과 손발을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쓸 수 있게 힘을 주신 은총에 감사한다.”¹³⁰⁾

그 와중에 영락교회는 부흥을 계속하여 서울시 전역은 물론이요, 경기도 일원에 서까지 출석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1980년에는 14개 교구, 1981년에는 15개 교구, 1982년에는 17개 교구로 증가하였고, 1980년 재적교인은 37,573명이고, 출석교인은 19,171명이 되었다.¹³¹⁾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영락교회는 이 시기에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크게 기울였다. ‘10월 유신’ 이후 정국이 급격하게 경색되자, 정부의 잘못된 시책을 비판하며 국가와 교회 사이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발언에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평소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온 영락교회의 목회 방향과도 일치하는 일이었다.

“죽어서 사는 삶-부활절 아침에 전태일 군에게”라는 글이 영락 1971년 2호에 실린 것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영락교회가 깊은 관심을 보였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 중에 “한경직 목사는 세계교회의 목사이다”라는 외침은 예언처럼 들렸으며 한경직 목사는 정년은퇴 이후 세계무대가 그의 교구가 되었다. *영락교회 35년사*, 258-262.

128) *영락교회 50년사*, 307-308.

129)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 출판위원회 편, *한경직 목사 성역 50년* (서울: 영락교회, 1986), 87-90.

130) “사랑의 쌀 나누기, 한경직 목사,” *한국일보*, 1990년 2월 19일자.

131) *영락교회 50년사*, 290-294.

1970년 11월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항거하여 분신자살한 전태일의 죽음은 당시 정부의 통제로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교회 기관지에서 다루었다는 점은 하나의 사건이자 용기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영락교회는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려 하였다. 1974년 12월 22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 역시 정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였다. 교회 내의 민주화 및 인권운동은 청년,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교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된 목사와 전도사의 가정을 돕는 일을 봉사부에서 맡도록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에 관한 한 예라 할 것이다.¹³²⁾

이 시기에 영락교회는 해외선교에도 열심을 기울였다. 1983년 해외선교 현황을 보면, 파송선교사가 11개 국가에 13명을 보냈다. 칠레와 서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시아 국가들이다.¹³³⁾

4. 저력있는 신앙공동체로서의 영락교회(1984-1986)

1984년 6월 박조준 목사의 '외화밀반출 사건'으로 인한 충격은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박 목사가 사임을 한 후 김윤국 목사가 부임을 했다. 그의 위임식은 1985년 9월 25일에 거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문화권 사고 방식에 토대한 미국식 목회방법으로는 한국 현실에 맞지름 않았다. 결국 그는 신상의 이유로 1987년 7월에 사임서를 제출하게 된다.¹³⁴⁾

김윤국 목사의 뒤를 이어 영락교회의 담임목사는 임영수 목사가 청빙되었다. 그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의 전환을 목회 방침이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동안의 사업 중 구제와 봉사 등에는 계속 지원을 하지만, 사업 중심의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영성을 지닌 교인으로서의 양육을 강조하였다.¹³⁵⁾

임영수 목사는 협동목회 제도를 도입하여 목회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러나 그 제

132) *영락교회 50년사*, 345-346.

133) *Ibid.*, 326. 아시아국가로는 괌, 인니,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파키스탄(2명), 인도(2명), 네팔, 말레이시아 등.

134) *Ibid.*, 358.

135) *Ibid.*, 367.

도는 몇 년 후에 전담목사제도로 변형되어 운영된다.

1990년 12월, 그동안 영락원이라는 이름을 '영락사회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바꿔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1990년에는 영락어린이집이 설립되고, 1991년에는 시립 합실 새마을유아원이 구립 합실 어린이집으로 개편되었으며, 1992년에 영락재가노인복지상담소, 1993년 영락노인요양원, 1994년 영락노인복지회관, 영락 애니아의 집 등이 신설되는 등 거의 매년 새로운 복지기관을 늘려가는 발전을 보였다. 그리하여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모자복지사업 등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¹³⁶⁾

1992년 4월 29일 한경직 원로목사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한다. 복음전파, 남북화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통한 빈민구제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시상식 순서 책자에 영문으로 게재된 영락교회에 대한 소개의 글에는 "서울 영락교회는 6만의 성도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이다. 이 교회는 로스앤젤레스 영락교회의 5천교도를 포함하여 지구상에 500개 교회를 개척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¹³⁷⁾

한경직 목사에게 템플턴상이 수여되는 자리에서 템플턴상의 설립자인 존 템플턴(John Templeton)은 "템플턴상은 단순히 성스러운 생활이나 활동을 기리자는 뜻이 아니라 종교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음을 강조하였다.¹³⁸⁾ 그리고 수상자 선정기준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수상자 선정기준이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업적만이 아니라 인간적 사랑이나 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신활동에 중점이 두어진다"¹³⁹⁾고 설명하였다.

템플턴 재단의 이러한 설명은 1992년도 템플턴상 수상자인 한경직 목사가 "종교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업적이나 인간적 사랑의 실천은 물론이고 "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신활동"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공인하는 표현이었다.

1995년 12월 3일은 영락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의 날이었다. 27명의 피난 성도로

136) *영락교회 50년사*, 407.

137) *Ibid.*, 414-415.

138) 김현호, "한경직 원로목사님의 템플턴상 수상식 참관기," *만남*, 1992년 5월호, 4.

139) *Ibid.*

시작된 교회가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로 성장했으며, 수많은 선교사역을 감당해 왔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다.

5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고, 노인요양원과 중증장애아요양원인 영락 애니아의 집을 건립하였으며,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등의 기념사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¹⁴⁰⁾

5. 새로운 도약을 하는 영락교회(1997-현재)

현재 영락교회를 담임하는 이철신 목사는 1997년 12월에 부임하였다. 1998년 5월에 국제예배를 창립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1999년 4월엔 젊은이예배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열린 예배 형식의 예배에도 자유롭게 참석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 젖어있는 영락교회 기존 성도들간에 의견 대립도 있었으나 국제예배나 젊은이 예배는 든든하게 자리 잡혔다. 더욱이 선교부 산하에 '문화선교부'를 활성화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선교에 활용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현재 17개의 팀들이 각 분야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¹⁴¹⁾ 1999년 4월엔 '교회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목회행정을 비롯한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유학중에 선교학을 전공한 이철신 목사¹⁴²⁾는 영락교회의 선교정책을 재정비하고, 능동성, 집중성, 효율성이 강조된 정책을 새롭게 세우며, 해외 선교사 파송도 정책에 따라 파송과 관리에 힘써왔다. 복음 수용성이 높은 중국에 4명의 선교사를 집중하여 파송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약해진 구역을 재정비하며 2000년부터 실시한 '구역지도자훈련'은 교회의 세포인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소그룹 리더임을 확신하고 추진한 사역으로 서서히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구역지도자훈련'과 병행하여 실시된 것이 '전도폭발훈련'이다. 이 훈련을 받아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 중에 '구역지도자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⁴³⁾

140) *영락교회 50년사*, 418-428.

141) *영락교회 요람* (2005), 128.

142) 바이올라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했다.

143) 본 연구자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12월 25일까지 6년간 부목사로 시무했다. 이 기간에

제 2 절 영락교회 선교정책¹⁴⁴⁾

본 절에서는 영락교회의 선교원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국내 선교 정책과 해외 선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후 앞서 밝힌 대로 해외선교현황에 국한시켜 영락교회의 선교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20년의 짧은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교회어로 전환과 해외 선교사 파송국 2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교회는 일천한 선교 역사로 인해 선교이해나 경험, 활동 방식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제 세계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인정하고 있고 선교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고난과 연약한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근거한 선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자기중심적 과시형의 선교, 공격적 정복주의적 선교, 물량주의 선교 등의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¹⁴⁵⁾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적 선교원칙과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올바른 원칙과 전략에 의해 바르고 열매 맺히는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락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선교 컨퍼런스에서 이철신 목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축사를 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초기부터 선교에 대한 놀라운 열정으로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수많은 곳에서 영락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과거의 영화를 생각하며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혼신을

청년부 지도, 선교부 지도, 행정담당 등의 사역을 했으며, '전도폭발훈련'과 '구역지도자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144) 영락교회선교부, 선교부자료집 1999-2000, 2001-2002, 2003-2004, (서울: 영락교회)에서 발췌하고, 2005년 영락교회 선교대회 기간 중 이철신 목사가 발표한 영락교회 선교정책을 참고하였다.

120) 한국일, "세계선교 상황에서의 한국선교의 위치와 역할,"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컨퍼런스 (서울: 영락교회, 2006), 111.

다해 기쁨을 마련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쁨 위에서 성숙한 선교 전략으로 이 세대를 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¹⁴⁶⁾

분명한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인적 자원의 낭비 없이 집중력 있는 선교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영락교회의 선교원칙은 첫째, 능동성이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도와 달라는 요청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선교를 지양하고 먼저 선교부가 선교정책을 세우고, 선교정책에 맞게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영락교회 선교부는 외부의 수많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요청 방법도 다양하다. 공문을 보내오는가 하면, 직접 찾아와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선교비 집행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을 통해 접촉해 오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에 맞게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능동적으로 정책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교원칙인 '능동성'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집중성이다. 산만하게 여러 가지 사역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에 집중해서 좀더 많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영락교회는 일차적으로 북방선교에 집중하는데 이는 북한선교와 중국선교를 의미한다. 이 원칙에 충실하게 사역을 해 온 결과 중국에 선교사 4명을 이미 파송하여 선교를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한 명의 선교사를 추가 파송할 예정이다. 중국과 북한에 집중하는 북방선교의 집중성은 영락교회가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효율성이다. 정책에 따라 사역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계속 평가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연차적으로 정리하고, 효율성이 높다면 지속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세 번째 원칙은 두 번째 원칙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즉 효율성이 높은 곳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원칙이다. 철저히 복음수용성이 높은 곳을 찾고, 그곳에 집중할 때에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선교는 에너지를 투입하는 양에 비해 열매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미

146)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 컨퍼런스* (서울: 영락교회, 2006), 5.

래를 보며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임할 때 반드시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영락교회는 북한 신의주 지역의 병원선교 등과 관련하여 현장을 드나들고, 탈북자 선교와 관련하여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정착과 신앙을 갖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1. 국내 선교 정책

가. 전도 훈련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화요일 교구별 전도폭발훈련, 토요일 직장인 전도폭발훈련을 통하여 수많은 전도의 일꾼을 양성하고 있으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그 외에 선교세계관학교, 선교제자학교, 선교현장영어훈련, 전문인 선교훈련과 영락 전도대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많고, 이 훈련 이후 전도에 전적으로 뛰어들어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 선교현장영어훈련은 전도폭발훈련의 복음제시를 영어로 능숙하게 하도록 훈련받아 영어권의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게 도와준다.¹⁴⁷⁾

나. 농어촌 선교 정책

첫째, 지원을 원하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는 시찰회, 노회, 총회를 경유하여 총회 농어촌부나 전도부에서 영락교회로 지원을 요청하면 선교부는 이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사 후 지원을 결정한다. 이때 영락교회의 첫 번째 선교원칙을 명심하여 능동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

둘째, 농촌교회를 세울 때 농촌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담, 과수원 등을 함께 지원한다. 이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여 지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 공동체와 연계하여 농촌 자립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은 중요한 농촌 선교사역이라 할 수 있다. 농촌교회는 공동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모든 농가들이 무공해, 또는 저공해의 농산물을 영락교회로 매주 금요일 아침 일찍 트럭에

147) 매년 수요자들이 팀을 이루어 필리핀, 인도 등의 영어권 나라로 가서 사역을 하곤 한다.

실고 오면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구입한다. 이 사역으로 인해 농가의 수입이 증대되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영락교회 성도들은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¹⁴⁸⁾ 이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누리 공동체에 속한 농가들이 철저히 무공해 또는 저공해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영락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구입하여 농가들을 계속 격려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지원금 증에서 청원지원사업과 자립정책사업의 비율을 정하여 지원한다.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에 있는 미자립 농촌교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자립하도록 한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예배당을 짓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 유치원까지 짓고, 목회자 사택까지 짓는 등의 공사에 많은 물질적 후원을 했으며 잘 훈련된 전도팀이 매주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를 하고, 젊은 남선교회원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빈 자리를 채우는 등의 집중적인 협력으로 짧은 시간에 자립을 하고, 지역사회에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

다. 교회 개척 선교 정책

영락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열심히 선교했으며 특별히 전국에 걸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교회로¹⁴⁹⁾ 다음과 같은 선교정책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회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과 개인이 특별한 의미로 기념 교회당을 짓기를 원할 경우 모두 선교부가 지원을 한다.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할 때는 선교부가 처음부터 책임 있게 일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다. 부지를 선정하는 일과 물질을 모금하고 집행하는 일 등을 선교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선교부 산하 '교회개척팀'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개척에 임하고 있다.

둘째, 교회 차원에서의 개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한다.

148) 매주 금요일 아침에 영락교회 구역지도자들 2천명 이상이 모인다. 이들은 마당에 진열된 새누리 공동체 농산물을 늘 기쁨으로 구입하고, 이 사역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격려한다. 이 사역은 생태계 보전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149) 한경직 원로목사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시상식 순서 책자에 영문으로 게재된 영락교회에 대한 소개의 글에는 50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십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그중 하나가 본 연구자가 담임하는 2006년 1월에 개척된 '행복을 전하는 교회'이다.

첫째, 특별한 상황 외엔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한한다. 둘째,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토지, 건물)을 사전에 확보(매입 또는 임차)한다. 셋째, 개척에 필요한 제비용(동산, 부동산, 교회건축)은 교회가 부담한다. 넷째, 교역자의 1년간 신수비(자녀들의 장학금 포함)를 지원한다. 다섯째, 선교부 예산안에 교회개척 항목을 두고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다. 더욱이 개척하는 목회자 사택구입비용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의 후원은 개척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두 번째 항목, 즉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토지, 건물)을 사전에 확보(매입 또는 임차)한다'는 항목이 지켜지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좋은 지역을 '교회개척팀'이 미리 선점하고 그 지역에 적합한 인물을 파송하는 형태이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개척 목회자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 개척팀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물질 후원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동역자의 협력이다. 물론 그 개척팀은 전도폭발훈련 등의 전도훈련을 받은 성도들이어야 한다.¹⁵⁰⁾

라. 학원 선교 정책

영락교회는 선교와 더불어 교육과 봉사를 중요한 목표로 사역을 감당하여 왔다. 영락교회는 학원선교를 위하여 1947년 대광중고등학교를, 1950년에는 보성학원을 세웠고, 1954년에는 송실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52년에는 영락중학교, 1959년에는 영락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1982년에는 영락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원선교에 앞장섰다.

현재 학원선교팀에서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기독교인 교육자와 초중고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기독교학교와 비기독교학교를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학교의 경우 훈련된 평신도들을 파견하여 신앙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비기독교학교의 경우 기독교반을 만들어 지원하는 형식으로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이외에 극빈자 우수학생 지원 및 신앙 수련회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 선교는 영락교회 대학부 캠퍼스 선교팀(APC: Ambassador

150) 평신도 개척팀 파송은 1999년 의정부 영락교회(이재팔 목사) 개척 당시 약 20 여명이 2년을 약정하고 파송되어 큰 활약을 하고 본 교회로 돌아온 좋은 선례도 있다.

for Christ)과 외부 대학생 선교단체와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¹⁵¹⁾

학원선교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선교회를 통한 학원협력선교를 한다. 즉 교사를 학원 복음화 사역자로 양육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 선교회를 지원하여 분야별 선교 전략을 극대화한다.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학원 복음화를 위해 사역할 현직 교사들이 많다. 이들을 훈련, 지원, 격려하여 현장에서 학원 선교사로 일하도록 한다.

둘째, 전국적으로 학생 지도자를 양성한다. 교사 양육과 더불어 학생 지도자 양성이야말로 중요한 학원선교의 두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영락교회에서 전국 규모의 중·고등부 학생수련회를 개최한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개최를 한다.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차세대 신앙의 지도자들(각 학교 학생대표, 신앙부장, 학생부장 등)을 양육하며 신앙교류를 목적으로 한다(연 1회).

셋째, 21세기 신앙의 꿈나무들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 교목실이 있는 중고등학교(약 34개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각 학교별 신앙부장 1명씩 지급). 교목실 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한다(전문 분야별).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들을 입양한다(동국대, 연대, 이대, 숭실대 등).¹⁵²⁾

영락교회는 학원선교와 관련하여 대광중고등학교 강당과 영락중학교 강당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¹⁵³⁾ 영락교회는 학교와 그곳에 개척한 교회 양쪽에 학원선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개척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학생들을 직접 전도하는 일에만 치우쳐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하며, 장학금, 신앙도서기증, 신앙수련회 인적, 물적 후원을 아끼지 않고 교목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군대선교 정책

영락교회는 1970년대 이후 민족복음화 정책의 일환으로 군복음화를 적극적으로

151)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 창립 60주년 선교컨퍼런스*, 115-116.

152) 교목들의 수련회 등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왔으며, 매월 수십 명의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여 사역을 격려해오고 있다.

153) 나들목사랑의교회(대광중고등학교)와 행복을전하는교회(영락중학교)를 통해 학원선교의 새로운 모델이 기대된다.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천 개가 넘는 군인 교회를 설립, 지원해 오고 있으며, 22만 명이상의 젊은이들에게 진중세례를 베풀었다. 군선교 팀에서는 '전군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목표 아래 2020년까지 국민의 75퍼센트를 복음화한다는 '비전 2020'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동시에 군인 교회 건축 및 보수, 군종목사 활동 지원, 진중세례 지원, 군 훈련소 선교 위문, 전도집회 및 선교 위문, 성탄절 점등식 등의 행사, 군종사관후보생 육성 지원, 군인 비품 지원, 군복음화 화보 발행 지원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¹⁵⁴⁾

영락교회의 군 선교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원에 의한 지원을 지양하고, 전략적 주요 거점 지역을 확보해 민목을 파송하고 후원하며, 유능한 장기지원 군목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군목들의 수로는 모든 부대 교회로 가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략적 주요 거점 지역을 확보하여 민목을 파송하는 일은 군목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며, 군복음화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목을 파송하는데 있어서 군선교에 소명을 받은 목회자를 파송해야 한다. 임지가 없어서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송하는 영락교회는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격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복음화후원회가 영락교회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선교부는 이를 접수하여 임원회, 예비심사, 실행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한다. 이때 가능한 전국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동안 군선교의 많은 부분을 영락교회가 감당해 왔기에 다른 교회들이 군선교에 소극적일 수 있다. 영락교회는 혼자 하는 선교를 지양하고 전국교회들과 함께하는 군선교를 지향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군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군복음화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군대의 영적 리더인 군목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군선교에 헌신해 왔기에 군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어왔다.¹⁵⁵⁾ 영락교회는 군목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군 선

154)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 컨퍼런스*, 166.

155) 본 연구자는 많은 부대 교회를 방문하고 설교를 했으며, 많은 군목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한국교회가 이들을 열심히 격려할 때 군선교의 열매가 더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어떤

교에 활기를 불어 넣으려 한다.

넷째, 군 지휘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부대장이 기독교인인 경우 부대 내에 쉽게 교회당을 세울 수 있다. 더욱이 군인들을 전도하는 일에도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영락교회는 기독교인 군 지휘관이 취임할 경우 그와 만나 적극적으로 그 부대의 복음화를 위해 일해 왔다. 또한 사전에 관계를 맺지 못한 부대라 할지라도 기독교인 지휘관이 교회당 건축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다섯째, 비전 2020 선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¹⁵⁶⁾ 군부대에서 세례받은 장병 및 영락교인 입대자를 관리한다. 교회 주보 및 발간물을 발송하고, 젊은이 예배 시 환영식(휴가 장병)과 입대자 파송식을 갖는다. 목양부는 제대 전후 특별한 관심(교회 정착을 위하여)을 기울이며, 제대날짜를 구역에 알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전하며 교회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중세례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한다.

마. 병원, 기관 선교 정책

영락교회는 선교 및 교육과 더불어 봉사를 중요한 목표로 사역을 감당하여 왔다. 이에 따라 교회 창립 이래 꾸준히 병원과 기관 선교를 시행하여 왔다.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으로 시립서대문병원, 수도육군병원, 국립의료원, 경희의료원, 백병원, 서울대학병원 등으로 병원 선교를 확대하여 왔다. 1976년부터 하기 의료선교 봉사단을 구성하여 교회, 경찰서, 군부대, 나환자촌 등을 순회 진료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립의료원, 서울아산병원, 경찰병원, 백병원과 노동부 산하 산재병원(태백증양병원, 동해병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맹인선교회, 시청각장애인교회, 교도소, 노인복지재단, 외국인근로자선교회, 호스피스선교회 등 특수기관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¹⁵⁷⁾

영락교회 병원 및 기관선교 역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능한 고정지원은 피하고 능동적, 집중적, 효율적으로 평가한 후 지원한

방법으로 격려해야 할지를 함께 논의하는 등 서로가 군선교의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야 할 것이다.

156) '전군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목표 아래 2020년까지 국민의 75퍼센트를 복음화한다는 '비전 2020' 운동.

157)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 컨퍼런스, 166.

다. 둘째, 병원은 자립 가능한 병원에 사역자를 파송하고 자립 모델로 제시한다. 셋째, 파송교역자는 정년을 65세로 하며, 기관 파송 교역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바. 미디어 선교

영락교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를 통한 선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디어 선교팀을 구성하여, 인터넷을 통한 선교, 방송선교, 선교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선교의 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선교를 감당할 인재양성을 위한 미디어 관련 각종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¹⁵⁸⁾

미디어 선교팀은 해외 선교사들을 돕는 데도 크게 유용하지만 농어촌 목회자들을 돕는 데도 적합하다. 영락교회 미디어 선교팀이 농어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컴퓨터 교육과 컴퓨터 장비 제공,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을 제공하는 일을 통하여 농어촌 선교에도 협력하고 있다.¹⁵⁹⁾

사. 문화 선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불리고 있다. 문화선교부에서는 문화를 통한 선교를 위하여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매주 토요일 '영락토요문화공간'을 개설하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늘어난 여가 시간 활용과 더불어 문화를 통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선교부 내에는 현재 국악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샤론발레단', 공연 예술팀 '새벽' 등 각종 공연팀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⁶⁰⁾

아. 선교 소단체

선교를 목적으로 자치적으로 결성된 소단체는 1945년 대중전도대의 발족을 시작으로 현재 겨자씨회, 새길회, 마르다회, 백합회, 수산나회, 성심회, 임마누엘, 유니아회,

158)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 컨퍼런스*, 166

159) 본 연구자는 선교부 지도목사로서 농어촌 목회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미디어 선교팀을 격려하곤 했다.

160)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 컨퍼런스*, 166.

토마스 선교회, 다비다선교회 등 40개 이상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소단체들의 규모는 적게는 3-40명이 모이기도 하지만, 천여 명이 모이는 단체들도 있기에 이런 소단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영락교회의 다수의 성도들이 선교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¹⁶¹⁾

이들 소단체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교도소선교, 장애인선교, 군선교, 해외선교 등의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자치적으로 결성되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부의 지도를 받고 선교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¹⁶²⁾

자. 남선교회

1946년 장년면려회로 출범한 남선교회는 2003년에는 1남선교회, 2남선교회, 3남선교회 그리고 4남선교회로 확장, 발전되었다. 이들 자체단체는 금요기도회, 월례회, 연합체육대회 등 각종 모임과 행사를 스스로 진행하며, 자체 예산을 조달하여 선교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¹⁶³⁾

차. 여전도회

1946년 부인전도회로 출범한 여전도회는 1994년 1, 2, 3, 4여전도회로 확장, 발전되었다. 여전도회는 기도회, 월례회, 선교바자회 등 자체 행사와 더불어, 국내 및 해외 선교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¹⁶⁴⁾

2. 해외 선교 정책

가. 선교 신학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그 목표로 하

161)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 컨퍼런스*, 167.

162) 성심회 같은 경우 군선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단체이다. 성심회는 매년 평균 3개의 군부대 교회를 세우며 철저히 선교부 군선교팀의 지도를 받으며 사역을 한다. 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선교의 열매가 많은 것이 영락교회의 강점이기도 하다.

163)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 컨퍼런스*, 167.

164) Ibid.

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최대 과제이며 기본적인 사명이다. 또한 선교는 다양한 문화적 현장 속에서 전개되며 인종과 문화와 교파를 초월한 협력적인 사역이다.

나. 영락교회의 해외 선교 4대 지침

영락교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선교 지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첫째, 복음전도를 최우선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한다. 선교에 가장 중요한 일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선교지에 학교, 고아원, 병원 등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구원에 있기에 교회 개척을 우선으로 한다. 셋째, 선교지는 북방과 동북아시아로 집중한다. 본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전 세계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본 교회의 특성을 살려 북한, 중국 등의 동북아시아와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북방 선교에 집중하고자 한다. 넷째,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제 1단계로 원주민을 선교하며, 제 2단계로는 현지 지도자를 육성하며, 제 3단계로는 현지 지도자에게 교회를 맡기며, 제 4단계로는 3단계를 마친 선교사는 다른 선교지역에서 선교한다. 선교사는 선교지 한 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단계별로 옮겨 사역을 한다.

다. 해외선교의 발전 과정

영락교회의 해외선교의 역사를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선교의 개척기(1955-1979)로 영락교회 해외선교의 역사는 1955년 태국에 최찬영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찬영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사 파송 역사에 선구자의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1958년 대만한인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이후 해외여행과 외환에 대한 규제 때문에 1979년 주선동 목사를 괌에 파송하기까지 후속적인 선교사 파송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¹⁶⁵⁾

둘째, 해외선교의 성장기(1980-1984)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여권과 비

165)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컨퍼런스*, 167.

자발급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80년대부터 해외선교사 파송은 급속히 증가한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더불어 칠레, 영국, 독일, 소말리아, 우간다 등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당시 파송된 선교사들은 손중철 목사, 고 한덕성 목사 등 교역자 외에 박영희, 강선자 선교사와 같은 평신도 선교사와 김영인, 심영순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 선교사의 활약이 두드러진다.¹⁶⁶⁾

셋째, 해외선교의 발전기(1985-1998)로 1980년대 초반 양적 성장을 거친 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선교사 파송지가 일본,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미국, 파라과이, 브라질,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우간다, 콩고 등으로 확장된다. 또한 파송 선교사도 대부분 목사들로 구성되어 보다 깊이 있고 영향력 있는 선교로 질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사역의 구체적 내용도 현지인에 대한 교육과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통한 현지인 교회의 설립을 추구하게 된다.¹⁶⁷⁾

넷째, 북방 및 동북아 선교 집중기(1999-현재)로 1980년대 이후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거듭해 온 영락교회 해외선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책적으로 북방 선교와 동북아 선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전환된다. 북방선교의 경우 북한선교센터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하영인 선교사의 파송과 더불어 여러 명의 선교사가 동북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파송되어 활동하고 있다.¹⁶⁸⁾

제 3 절 영락교회 선교현황

영락교회의 해외선교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¹⁶⁹⁾

단기 선교사는 선교제자훈련학교를 수료한 성도를 대상으로 파송하며, 6개월을

166)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컨퍼런스*, 167-168.

167) Ibid., 168.

168) Ibid.

169) 2007년에 중국과 칠레에 각각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된 상태이기에 파송선교사는 12명으로 기록해도 옳을 것이나 2007년 1월 현재 현황을 기록하였다.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고, 현지 선교사가 요청할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여 사역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현황을 보면 파송 및 협동선교사는 정해진 액수를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선교사, 네트워크선교사는 프로젝트별로 심사하여 지원한다. 단기선교사는 매월 미화 300불을 지원하며, 모든 선교사들의 청원에 의한 지원은 선교부 임원회, 예비심사, 실행위원회를 거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 영락교회의 해외선교 현황

	인원	국가수	비고
파송선교사	10명	6개국	중국(4명), 인도(2명), 칠레(1명), 러시아(1명), 싱가포르(1명), 인도네시아(1명)
협동선교사	7명	7개국	
전문인선교사	4명	2개국	
단기선교사	15명	10개국	
네트워크선교사	6명	5개국	

지금까지 영락교회의 역사, 그리고 영락교회의 선교정책과 선교현황을 살펴보았다. 영락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영락교회는 '통전적 선교관'을 가지고 개척 초기부터 개인구원과 민족복음화는 물론이고, 사회봉사를 통해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온 교회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해방 후 가장 먼저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등의 선구자적 해외선교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본이 되었으며, 선교사를 돕는 선교 사역을 모범적으로 해 온 교회이기도 하다.

특별히 선교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부를 비롯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40여개의 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힘을 더하는 것이 강점이기도 하다.¹⁷⁰⁾ 특히 문화선교부 산하의 20여개의 팀들과 미디어팀의 활약은 국내,

170) 2005년을 기준으로 선교부 예산은 약 21억이고 남선교회는 2억, 여전도회는 3억5천만 원이다. 여기에 40여개의 소단체가 수역을 협력하며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 창립 60주년 선교 컨퍼런스*, 169.

해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는다. 또한 학원선교와 군대선교 그리고 북한선교는 한국 교회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 왔으며, 많은 교회들이 영락교회를 모범으로 삼아 왔음을 볼 수 있다.¹⁷¹⁾ 그러나 해외선교현황을 볼 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

첫째, 중국에 네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이 지역은 복음수용성이 높고 인구도 많은 지역이라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둘째, 현재 성도수가 4만 명이 넘는 영락교회의 규모에 비해 파송선교사가 열 명으로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 현지인 지도자 다수와 현지 선교사역의 많은 재정을 영락교회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영락교회의 선교사 한 명은 타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여러 명과 맞먹는 재정 후원이 뒤따르고 있다. 이것은 가시적인 실적에 얽매이지 않는 영락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¹⁷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송 선교사의 수가 적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2007년도에 중국과 칠레에 각각 1명씩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일은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셋째, 전문인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이는 평신도의 선교 참여가 부실하다는 근거요, 교회내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파송 선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전문인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를 늘리는 것이다.

171) 특별히 북한선교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앞장서는 목회자들 가운데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회자들이 많다.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북한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문성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한국교회에 대한 공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72) 본 연구자는 영락교회 선교부 지도목사로 시무하는 기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대형 교회 선교부 지도목사들과 총회 세계선교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많이 했다. 실제적으로 영락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이 파송선교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총회규정의 60퍼센트 정도만을 후원하거나 그보다 못 미치는 교회들도 있었다. 이는 담임 교역자의 선교철학에 의한 것으로 선교사 스스로가 모금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반면에 영락교회는 총회규정대로 후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단체들을 통하여 더 많이 후원하려 노력한다. 더욱이 선교사의 사역 중에 발생하는 현지 동역자들을 후원하는 문제도 영락교회는 적극적이다. 주보에 기록된 선교사 수로만 비교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

제 5 장

바울의 선교전략에 비취본 영락교회 선교개발

전 장에서 사도바울의 여러 가지 선교 전략 중에 가장 두드러진 전략을 세 가지 제시했다. 첫째, 동역자들과의 협력선교이다.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과 동역을 잘 하여 선교의 효율성을 높였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도시중심의 선교 즉, 제한된 시일 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겠다는 의도에서 인구가 집중되고, 보다 개방적이며, 공용어 사용이 가능하고 더욱이 주변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하기에 바울은 철저하게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지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좋은 곳에 집중하는 선교이다.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약한 곳보다 반응이 좋은 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설 때까지 체류하면서 돌보았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 및 자원으로 반응이 좋은 곳에 집중하는 전략이야말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락교회 선교개발에 대한 논의도 이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2천년 전이나 2천년이 지난 지금이나 선교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전략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역교회로서 영락교회는 바울의 상황처럼 제한된 인력, 제한된 자원, 그리고 급변하는 선교현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정책이나 전략이 사도바울의 선교전략과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었지만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사도바울의 대표적인 선교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고, 영락교회의 지금까지의 선교전략의 장단점을 살펴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동역자들과의 협력선교

동역자들과의 협력선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파트너십’은 용어상 “들 혹은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모여 그들의 관계를 보다 능력이 있도록 결집시키고 상호간의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¹⁷³⁾임을 말한다. 네덜란드의 선교학자 소가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 협력이란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도 많은 연합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보다 높은 차원의 위탁이요, 위임이라는 것이다. 사역을 위한 책임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어 소유하며 성과의 질을 배양하며 모두가 이기는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것이다.¹⁷⁴⁾

“새 천년의 시대적 상황에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초점은 지역 공동체까지 미치는 협력 선교”라고 밴 엥겐(Charles Van Engen)은 말했다.¹⁷⁵⁾ 버틀러(Philip Buttler)는 *협력 관계가 가진 힘 (The Power of Partnership)*에서 협력이 귀중한 이유로 “협력은 성경적이며 공동체 증거가 지닌 힘의 본을 보여주며, 교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며, 변덕스러운 세계의 상황 때문에 필요하며, 가용 자원들을 극대화한다”고 강조하고,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협력의 선교를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¹⁷⁶⁾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선교 협력을 그물로 비유해 설명한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각각 그물의 가로줄, 세로줄과 같아서 잘 짜여진 그물을 통해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 어부보다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¹⁷⁷⁾

본 절에서는 이러한 협력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먼저 사도바울의 선교 사

173)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 s.v. “Partnership”, by a Scott Moreau.

174) 김동익, “21세기 한국교회의 선교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0), 20에서 재인용.

175) Charles Van Engen, “Toward a Theology of Mission Partnership”, *Missiology* (January 2001), 33.

176) 서성민, “한국 장로교회 선교의 협력,” *선교와 신학*, 194.

177) *Ibid*, 195.

역에 있어서 동역자들과의 협력선교 부분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그가 팀을 이루었던 평신도, 그리고 여성들과의 협력이 선교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 특히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이 어떻게 선교현장에서 활용되며 어떻게 목회자 선교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 후 영락교회의 협력선교 현황과 보다 나은 협력선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는 철저히 동역을 통한 선교임을 알 수 있다(행 16:10, 13, 16, 28, 37 등).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동역선교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마가 문제로 인해 불화도 있었지만 불화 때문에 결코 동역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¹⁷⁸⁾

바울은 철저하게 동역을 통한 선교를 했으며 그의 동역자들을 볼 때 사역자들이나 남성들로 국한되지 않고 평신도들 그리고 여성들까지 그 폭이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들은 그들을 통해 바울의 선교 활동에 상호 책임적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¹⁷⁹⁾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의 선교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이다. 평신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이며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⁰⁾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선교의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는 한 선교의 참여적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다. 평신도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평신도의 발견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게 한다.¹⁸¹⁾ 평신도는 일과 예배,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평신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는다.¹⁸²⁾

바울의 팀 구성원들은 열두 제자와 다를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선택하셨지만, 바울의 팀은 상당한 문화적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다. 갈릴리 어부들은 세

178) 전호진, *선교학*, 68.

179) Johannes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최동규 역 (서울: CLC, 2005), 182.

180) John Fleming, Ken Wright, *새로운 선교와 교회구조*, 김정준,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21-22.

181) Hans Ku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5), 85.

182) 세계교회협의회 편, *세계교회협의회 역대총회종합보고서*, 이형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63.

리, 열심당원, 그리고 유대출신 제자와 함께 섞여 지내야 했다. 바울의 동료들 역시 이와 비슷하게 다양했다.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었다(행 4:36), 디모데는 혼혈 유대인이었으며(행 16:1), 디도는 헬라인이었고(갈 2:3),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다(골 4:14), 소스데네는 전에 회당장이었고(행 18:17), 실라는 선지자였으며(행 15:32), 뵈뵈(롬 16:1) 그리고 브리스가 같은 여자들도 있었다(행 16:3). 세나는 교법사였으며(딤후 3:13), 아블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고(행 18:24),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출신이었으며(행 19:29), 두기고와 두로비모는 아시아 사람들이었다(행 20:4). 글라서가 그의 저서에서 기록한 대로 “바울은 단독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¹⁸³⁾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여러 인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졌기에 동료들도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평신도의 헌신이 선교에 얼마나 크게 공헌하는지를 보여주었고, 더욱이 평신도와 목회자와의 협력이야말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수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 활동을 이러한 평신도관에 근거한다면 전통적인 교회의 선교 구조는 새롭게 바뀔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 중심적 선교 패러다임에서는 평신도는 목회자의 보조자 위치에 있다. 교회의 선교적 관심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지 않고 교회 보존이나 확장과 같은 내부적 사항에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 중심에 기초한 교회 중심적 선교에서는 평신도의 비전과 선교적 역량을 교회 내적 일로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며 책임적 선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교회적 차원에서의 참여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인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¹⁸⁴⁾ 호켄다이크는 평신도만이 참으로 “세속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까닭은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유대를 실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⁵⁾ 교로 오늘의 선교적 과제는 목회자들의 목회에 집중되는 교회 내부적인 활동을 넘어서 이 세상 안에서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선교적으로 진지하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회 내 질서, 즉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꿀 필요가 있다. 평신도는

183)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78.

184)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79.

185) H. C. Hoekendijk, *흘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선회, 1975), 94.

목회자를 돕는 보조자가 아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평신도를 돕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평신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목회자의 책임이며 과제이다.¹⁸⁶⁾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위임 받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목회자 자신이 직접 세상의 일선에 나서지 않는 대신 평신도가 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선교적 과업은 평신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목회자들은 거기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¹⁸⁷⁾ 평신도들의 직업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직접적 도구이며 통로이다. 평신도에게 가장 큰 유혹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존을 포기하고 교회 내의 안전지대로 도피하는 것이다. 매일의 삶의 현장, 직장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교 현장이다. 날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선교 현장인 세상 한 복판으로 파송하시며(요 20:21) 바로 직장, 가정, 사회 속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세상에서의 평신도는 말과 일과 생활을 통해서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되어간다.¹⁸⁸⁾ 그러므로 평신도가 선교지향적으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하며, 더욱이 선교전략을 가지고 평신도와의 협력 선교를 지향할 때 그 열매는 참으로 클 것이다. 1974년 로잔대회에서 기업인이며 평신도 사역자인 포드 매디슨이 평신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잠자는 거인”으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¹⁸⁹⁾고 역설한 것은 평신도의 선교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평신도의 선교활동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폐쇄된 국가들을 공략하는 데 용이하다.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선교사는 복음에 접촉되지 않은 민족 혹은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 혹은 지역은 대부분 일반적인 혹은 전통적인 선교적 접근 방법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장벽은 갈수록 더 높아만 간다. 그리하여 혹시 접근한다 해도 복음전도나 교회 개척이 매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¹⁹⁰⁾ 따라서 이런 지역

186) Hoekendijk, *풀어지는 교회*, 96.

187) Ibid.

188) 세계교회협의회 편, *세계교회협의회 역대총회종합보고서*, 168.

189)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60.

190) John Stott, *The Spirit, the Church, the World: The Message of Acts* (Downers

은 창의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 지역이며, 이런 곳에서 사역할 일군 또한 많이 필요하다.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일하려면 선교사 자신도 창의적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개념이나 전략만을 가지고는 결코 효율적인 선교사역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사보다는 전문인 선교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¹⁹¹⁾ 이러한 지역들은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영적 불모지이고 그런 점에서 초창기의 선교 단계에 해당된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야말로 오늘날 남은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선교사역자들인 것이다.

둘째, 통전적 선교사역에 유리하다. 폐쇄적인 지역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의 편중 현상에 따라 가난한 나라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외부로부터 구제 개발원조에 대한 필요를 인정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¹⁹²⁾ 이런 나라들을 위하여 지역사회 개발, 구제, 사회봉사, 문맹퇴치, 식량지원, 사회개발,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개발 사역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교회개척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함께 병행되는 총체적 선교 혹은 통전적 선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통전적 사역을 행할 때에 선교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전적 사역을 위해서는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유리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직접 현지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면서 사역하므로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선교비 사용면에서 효율적이다. 한국 교회가 남은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만 명의 선교사를 더 보내야 한다. 그런데 헷셀 그레이브가 지적한 대로 갈수록 선교비가 더 증가하고 있다. 그가 1950년대에 선교지에 갈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니 선교비가 약 46배가 증가하였다고 말한다.¹⁹³⁾ 물론 이러한

Grove: InterVarsity Press, 1990), 317-318.

191) 이런 이유로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3만5천의 북미 선교사들 중 약 95퍼센트가 세계의 17퍼센트 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나머지 83퍼센트의 지역에는 아주 소수의 선교사들만이 사역을 하고 있다. Ruth Siemens, "새로운 선교의 길", *직업선교: 21세기가 원하는 해외선교*, 이득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1), 14.

192) World Population Data Sheet는 이러한 나라들이 79.3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Ibid., 112.

현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선교비가 점차로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선교비가 계속해서 증가할 때에 교회들은 선교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를 전통적인 목회자 사역자로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전문인 선교사들은 선교비의 상당 부분을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단기로 사역을 하므로 자녀 양육비나 노후 대책 문제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목회자 사역자들보다는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선교전략가 롤랜드 알렌은 “영적 사역이었던 선교사역이 요즈음은 재정적 사역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 돈에 의존되어 있기에 비그리스도인들은 멀어져 가고 있다”¹⁹⁴⁾라고 한탄하였는데, 이러한 물질 의존적인 선교를 극복하는 데 전문적 선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직업을 통한 자연스러운 선교사역에 유리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평신도는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목회자 사역자와는 차이가 있다. 전형적인 이슬람 지역의 경우는 직업이 없으면 아예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기가 어렵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의 경우 자신이 가진 기술 혹은 직업과 사업장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런 기회가 있다. 또한 직업을 통하여 접촉하면서 현지인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가지므로 그들의 적나라한 삶의 모습과 고민들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대일 우정관계를 기초로 비밀리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그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으며, 회심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을 때 작은 그리스도인 그룹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인들과의 많은 접촉이 필요한데,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의 경우 현지인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진다해도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점에서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전문인 선교의 큰 장점이다.¹⁹⁵⁾

193) David J. Hasselgrave, *현대선교의 도전과 전망*, 장신대 세계선교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195.

194) Roland Allen, *The Case for the Voluntary Clergy* (London: Eyre and Spottiswoode, 1930), 58, 105-106.

195) 안승오, “평신도 전문인 선교의 성경적 예증과 전망,” *복음과 선교*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6), 29.

다섯째, 효율적인 선교사역을 위해 결단하는 것이 쉽다. 선교사역의 단계 이론에 4P 단계라는 것이 있다. 즉 개척자 단계(pioneer), 부모 단계(parents), 동역자 단계(partner), 참여자 단계(participant)이다. 여기서 마지막 4단계에 이르게 되면 선교사는 서서히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선교사가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자칫 현지인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¹⁹⁶⁾ 그러나 장기 목회자 선교사들의 경우 죽을 힘을 다해 키운 사역을 두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사역을 개척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¹⁹⁷⁾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가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물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역의 단점도 있다. 전문인 선교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역에 임하므로 통제가 잘 안될 수 있고 직장 일과 복음 사역의 일을 함께 해야 하므로 선교에만 효과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렵고 신학적 훈련이 잘 안되어서 자칫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¹⁹⁸⁾ 그러므로 이러한 단점을 미리 예측하여 교단 총회나 선교단체, 그리고 개교회 등에서 충분한 선교훈련을 받은 후에 보내야 한다. 이 단점을 극복한다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평신도의 중요성과 동시에 여성들의 선교 협력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물론 '평신도'라는 이름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지만,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소외받아 온 이름이 '여성'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선교초기에도 스크랜튼(M. F. Scranton) 부인이 선교사로 들어와 여성 교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화학당을 세웠으며, 데이비스(M. S. Davis) 여선교사의 경상남도 일대의 선교활동은 이미 한국 교회 역사에 깊이 남아있다.¹⁹⁹⁾ 세계선교사에도 여성들을 통한 선교사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는 부인할 수 없다. 활발한 선교 현장엔 늘 헌신적인 여성들의 선교 협력이 있었다.

글라서는 바울의 선교사역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동역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성경

196) 안승오, "평신도 전문인 선교의 성경적 예증과 전망," 30.

197) 이 부분은 5장 3절의 '효율적인 선교' 부분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며, 영락교회가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선교지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현지인 교회나 팀에게 맡기고 새롭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는가에 대해 다루겠다.

198) 안승오, "평신도 전문인 선교의 성경적 예증과 전망," 31.

199)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50.

에 기록된 대표적인 인물들을 예로 든다. 즉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했고(행 16:12-15),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위해 서로 바울 쪽에 가까이 가기 위해 싸웠다(빌 4:2). 이것은 아가야에서 마리아, 드루배나,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과 같다(롬 16:6, 12).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남성들로 이루어진 이동 사도단과 함께 이들의 동참이 있었기에 바울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기독교 운동의 화목하고 화해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다. 그의 순회선교 공동체는 복음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적대감을 제거하신 화해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다양성 안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시범 공동체였다(갈 3:28; 엡 2:14-16).²⁰⁰⁾ 바울은 목회자, 남성, 그리고 평신도,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전파에 도움이 되는 인력들을 동역자로 삼아 팀을 이루어 사역을 했기에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동역자들은 어떠했을까?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리더의 잠재력은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²⁰¹⁾고 말한다. 역시 탁월한 리더십 전문가인 워렌 베니스는 “리더는 그룹 속에서 위대함을 찾는다. 또한 리더는 멤버들이 그룹 속에서 위대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²⁰²⁾라고 말한다. 탁월한 리더들을 볼 때 그들은 강력한 핵심 인물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존 맥스웰은 더욱 확고하게 주장한다. “사실 리더의 잠재력은 그 리더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주변 핵심 인물들이 강력하다면 리더는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인물들이 빈약하다면 리더의 영향력은 지극히 감소된다.”²⁰³⁾ 팀의 중요성과 팀을 통한 사역의 효율성은 이들 뿐 아니라 수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일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팀이 사역에 효율적인가? 그렇지는 않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팀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도 나올 수 있다. 팀이 중요하고, 팀을 통해 사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팀이 양질의 팀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떤 팀을 양질의 팀이라 말

200)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79.

201) John Maxwell, *(성경에서 배우는) 불변의 리더십*, 채천석 역 (서울: 청우, 2000), 203.

202) Ibid.

203) Ibid.

할 수 있을까?

짐 콜린스(Jim Collins)는 “올바른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고, 잘못된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리게 하며, 그런 다음에 버스에 탄 사람들을 올바른 좌석에 앉히는 것이 리더의 임무”라고 말한다.²⁰⁴⁾ 진 우드(Gene Wood)는 우수한 팀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²⁰⁵⁾

첫째, 팀원들은 그들의 입증된 헌신, 능력, 은사들의 어우러짐, 개성, 기꺼이 협력하려는 자발성 등에 의거해 임명된다. 둘째, 목표는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전달된다. 목표의 부재는 열의 없는 노력과 애매모호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다. 셋째, 역할들을 명확히 규정한다. 팀원들은 모두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이 팀의 나머지 위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안다. 넷째, 모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 팀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승리를 위해 중대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다섯째, 보상(상금)은 높다. 꿈을 공유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된다. 여섯째, 개인의 희생이 기대되고 또 요구받는다. 팀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볼 때에 리더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즉 그의 팀은 탁월하고 우수한 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우수한 팀이 있었기에 바울이 팀을 통한, 동역자들을 활용한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글라서는 바울이 팀으로 사역했음을 강조하면서 “나” 또는 “내게”라는 말보다는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라는 말을 선호했다고 말한다.²⁰⁶⁾ 그의 주장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단수 대명사가 4회만 나오는 데 반하여, “우리”를 표현하는 복수 대명사는 90회나 나온다. 바울은 팀과 함께 구제와 위로하는 일을 했으며(고전 16:1-2; 고후 8:16-20), 고난과 핍박, 투옥을 함께 당하였고(롬 16:17; 골 4:10), 선교 서신을 쓸 때에도 혼자 쓰지 않고 소스데네와 같은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썼다(고전 1:1-2).

바울 서신을 읽다보면 글라서의 주장처럼 바울은 “단독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²⁰⁷⁾, 철저하게 팀을 이루어 협력 사역을 하여 선교 열매를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4) Gene Wood, *팀을 혁신하는 리더십*, 채천석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출판부, 2005), 319.

205) Ibid., 319-329.

206)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79.

207) Ibid., 478.

그렇다면 여기서 영락교회 해외선교에 있어서도 동역자들과의 협력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좀더 동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협력선교의 긍정적인 모습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다.

첫째, 중국 선교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영락교회는 중국 T지역에 신학교를 세웠다. 비밀리에 운영하는지라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지만 신학교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시설도 좋고 교수들의 수준도 높아 훈련이 잘 된 졸업생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다.

이곳에 영락교회 부목사들이 파송되어 자신이 전공한 과목을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수들과 졸업생들에게 강의를 한다. 매월 한 명씩 파송되니 한 학기에 3명씩, 1년에 6명의 부목사가 강의를 하고 온다. 그렇게 되면 다녀온 부목사는 선교열정에 더욱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교하거나 성경공부시간 중에 성도들에게 선교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교회 내 많은 선교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의실에서의 훈련을 마치면 해외 선교지를 다녀오게 된다. 또한 선교부 산하 여전도회나 남선교회에서도 팀을 이루어 선교지를 찾는데, 이들의 방문으로 인해 선교사는 격려를 얻고, 선교지엔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이 더해져서 선교지가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T지역은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찾는 곳이라 그 열매가 더 많다. 선교지에 다녀온 평신도들이 T지역 선교사들과 신학생들을 돕기 위해 장학회를 만들었고 60명 이상이 기쁨으로 협력선교를 감당하고 있다.²⁰⁸⁾

T지역엔 또한 방송, 컴퓨터 등의 평신도 전문가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신학교의 방송시설과 음향, 영상 등의 시설을 확대해가며 동시에 현지인 전문가도 양성하곤 한다. 이들은 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며 선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로 인해 T지역의 H선교사는 “새로운 기술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현지인에게 기술 이전도 해주어 신학교 운영에 커다란 도움을 얻는다”고 말한다.²⁰⁹⁾

208) 영락교회 소단체인 ‘유니아회’는 T지역을 위한 협력선교의 좋은 본을 보이고 있다.

209) H선교사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과 협력을 잘하여 선교의 많은 결실을 맺어왔으며,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존경받는 선교사이다.

바울의 협력선교가 효율적이었듯이 영락교회의 중국선교는 목회자 선교사들과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그리고 본부와 여전도회, 그리고 소단체 등의 협력으로 그 열매가 풍성함을 보게 된다.

둘째, 인도네시아 지역에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미용 선교팀과 의료 선교팀을 파송하여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사가 그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전역의 선교사들을 위해 '인터넷 선교팀'을 파송하여 컴퓨터 기술을 지도하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시켜주고, 컴퓨터가 없거나 너무 낙후된 선교사에게는 컴퓨터를 기증한다.²¹⁰⁾

2006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협력선교를 확대하여 인도네시아 람퐁 지역에 세워진 신학교에 영락교회 부목사들이 한 주간씩 강의를 하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있기에 강의를 하는 부목사들이나 진행을 하는 선교부나 모두가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첫 강의로 자신의 전공인 구약학을 강의할 오철훈 목사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있기에 마음은 편하다. 인도네시아라는 또 다른 선교지에서 강의를 하게 되니 그저 기대가 되고, 기쁘다"고 말한다.²¹¹⁾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김상현 선교사 또한 이러한 협력선교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 그는 영락교회 전도사 시절, 중국 T지역에서 부목사들이 강의하는 모습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아 왔기 때문이다.²¹²⁾

중국과 인도네시아 외에도 여러 나라 선교지에서 협력선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락교회는 나름대로 협력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협력선교에 비춰서 몇 가지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에 파송된 네 명의 선교사들간의 협력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중국에 복음수용성이 높아서 네 명의 선교사를 집중적으로 파송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선교사들간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최근에 파송된 두 명의 선

210) 영락교회 인터넷선교팀은 여러 해 동안 선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선교사들에게 인기가 높다. 본 연구자도 선교부 지도목사를 하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들에게서 이 팀의 지원요청을 받곤 했다.

211) 2006년 1월 27일 본 연구자는 그와의 대화에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212) 2006년 1월 25일 본 연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협력 선교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피력했다.

교사는 아직 언어 훈련중이라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임 두 선교사 중심으로 본부와 긴밀히 연락하여 협력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파송된 H선교사 중심으로 네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며칠간 교제를 하며 서로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최근에 상해에서 선교부 지도목사인 김인 목사와 네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늦기 전에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면 복음수용성이 높아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본부의 전략이 보다 효과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현재 T지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 H선교사는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 특히 졸업생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졸업생들과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의 연계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07년도에 경제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상해에 선교사를 추가로 파송하여 한인교회를 세우는 계획 또한 기존 네 명의 선교사들과 협력을 통한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도 선교사들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인도에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나름대로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다. 한 명의 선교사는 대도시인 벵갈로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며 문화선교대학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 명의 선교사는 크리슈나기리라는 작은 지방도시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큰 사역지를 이루었다.

두 사역지간의 거리가 자동차로 두 시간 정도이므로 협력이 가능하다. 크리슈나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선별하여 벵갈로의 문화선교대학에서 공부하게 하고, 졸업한 후에 크리슈나기리에서 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속히 열면 좋겠다. 현재 크리슈나기리 모든 학교의 교사들은 대부분 힌두교도이다. 그 일을 위해 벵갈로의 문화선교대학을 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협력하고, 크리슈나기리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그곳에 보내어 공부하고, 졸업 후 모교의 교사로 사역하도록 하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훈련된 크리스천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야 할 것이다.

셋째, 프랑스 유학생 선교에도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프랑스에 파송되어 있는 고금자 선교사는 두개의 도시를 오가며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그 사역이 10년 이상 되어가고, 유학생 수도 늘어가지만 영락교회에서는 이렇다 할

협력선교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²¹³⁾ 간혹 대학부에서 유럽의 몇 개 나라를 비전 트립하는 중에 잠시 들르는 일이 전부였다.

예전과는 달리 대학부나 청년부에서는 여름과 겨울 기간에 여러 해외 선교현장을 찾는다. 이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프랑스를 찾아 현지의 유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갖는다면 좋을 것이다. 강사는 대학부나 청년부 지도목사, 또는 프랑스 현지의 교역자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영락교회 대학부나 청년부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이다.

넷째, 칠레와 쿠바도 협력선교가 필요하다. 칠레에 선교사를 파송한 지가 20여년이 되었다. 칠레영락교회를 통해 이민목회를 감당하고, 현지인 선교를 위한 여러 단체를 만들고 운영하며 많은 선교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어, 오가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보니 본부와 동떨어진 선교현장이 된 듯하다. 이는 선교사를 파송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쿠바도 마찬가지이다. 선교부 교역자와 임원들도 가보기 힘든 곳이라 일반 성도들의 관심은 너무도 적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본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본부와외의 선교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쉽게는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기도제목을 계속 공급받고 성도들의 관심과 기대감을 고조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본부에서는 선교지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여 선교사가 현실 안주하는 것도 방지하고, 협력선교 방안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격려를 하여 선교 열매가 잘 맺히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보기도팀은 모두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²¹⁴⁾ 영락교회 중보기도팀은 그 열심이 대단하다. 주일 중보기도팀이 있고 평일 릴레이 기도팀이 있다. 홈페이지 '중보기도실'을 통해서도 기도제목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특별히 수요일 중보기도모임은 선교사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모임이기에 이러한 중보기도 자원을 활용하면 여러 면에서 좋다. 즉 기도를 통하여 선교현장에 성령의 역

213) 몇 년 전에 고금자 선교사가 잠시 귀국했을 때 "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사랑면'이라면서, 그것을 들고 와서 집회인도를 해달라"고 본 연구자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

214) 본 연구자는 2001년 한 해 동안 영락교회 중보기도팀 지도목사로 섬겼으며, 이 기간에 중보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다.

사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증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선교 열정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선교사들이 동역의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선교부에서도 선교사 개인의 기도제목은 물론 선교현장의 여러 가지 기도제목을 함께 증보기도실로 보내주는 것이 좋으며, 더욱이 선교현장으로 나가는 선교부 임원들을 비롯한 여러 팀들의 기도제목도 구체적으로 증보기도실로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될 때에 선교가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사역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2 절 도시중심의 선교 개발

도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될 수 있다. 먼저 도시를 그 어의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를 의미하는 영어 ‘city’는 법적, 정치적 지위를 가진 정부단위를 의미하고, ‘urban’은 도시문화를 의미한다. 이 둘의 개념이 합치된 의미에서 도시를 정의하면 도시란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단위로서 인간문화의 중심지를 의미한다.²¹⁵⁾ 또한 도시는 한자로 ‘都’와 ‘市’의 복합어인데 ‘都’는 왕과 관료들이 거주하는 정치, 행정적 중심지를 의미하고, ‘市’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 교환하는 경제활동장소인 시장을 의미하므로 ‘都市’는 정치, 행정,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²¹⁶⁾

학자들의 견해를 좀더 살펴보면, 막스 베버(Max Weber)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이 아닌 공업 또는 상업 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취락으로 도시를 규정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중심으로서의 도시를 정의한다.²¹⁷⁾ 로빈슨(W. A. Robinson)은 도시란 예술과 문화 그리고 과학의 발상지로서 자유와 해방의 힘이 발생하는 원천이라고 정의하며, 와그너(Philip L. Wagner)는 도시란 사고와 사고가 만나는 터전이자 사상의 용광로이고, 사람들과 사상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상의 보고인 동시에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로빈슨과 와그너는 도시를 문화 창조의 중심으로 정의한다.²¹⁸⁾ 막스 베버는 또한 서양의 도시는

215) 김수신, 허중경, *도시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2.

216) Ibid.

217) 노춘희, 김일태, *도시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0), 12.

시장의 중심지인데 반해, 동양의 도시는 정치, 행정의 중심지, 즉 통치권 행사의 중심으로서의 대부분 관아 중심의 도시의 성격을 띠고 봄으로써 정치, 행정의 중심으로 도시를 정의한다.²¹⁸⁾ 바노베츠(J. M. Banovetz)는 사회적 공동체로서 도시를 정의하고 있는데, 도시를 사회적 공동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사회단위이고 인간들 간의 촉매점이며 공공재의 생산단위이며 문화보고 라고 본다.²²⁰⁾ 머포드(Mumford)는 도시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사회유기체로 본다. 즉 그는 도시를 사회, 경제, 정치적 기능이 축약된 용기로 간주하며, 다양한 활동 기능이 한 인체 내에서 모두 일어나며 이것이 질서정연하게 조직되어 있는 유기체에 비유하였다.²²¹⁾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화 현상을 보면서 도시 선교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도시 선교를 위한 연구의 역사를 시대별로 간략하게 살펴보자.²²²⁾ 첫째,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백인들이 도시를 떠나 교외로 빠져나가고, 유색인종들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이에 따른 이해와 대응의 필요에서 도시 연구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1970년대 교회성장과 도시와의 연관성에서 맥가브란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²²³⁾ 셋째, 복음주의 진영의 1980년 태국 파타야 세계복음화로잔위원회의를 통하여 도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로저 그린웨이(Roger S. Greenway)가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선교기관들이 여전히 도시를 회피할 때 도시선교에 대해 강조한다. 그리고 6년간 도시사역의 중요한 지도력을 제공한 정기 간행물 *Urban Mission*의 발간을 맡은 후에 하비 칸(Harvie M. Conn)에게 넘겼다. 또한 1989년 제2차 로잔 세계복음화 마닐라 대회에서도 도시선교를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도시선교 분야에서는 로저 그린웨이, 그리고 그와 함께 *Cities: Mission's New Frontier*를 저술한 티모디 몬스마(Timothy Monsma), 하비 칸, 레이먼드 바크(Raymond Bakke), 그리고 비르 그릭 등이 주요한 인물들이다. 넷째, 1990년대에 들어서 도시 연구에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도시 내의 '영적 도해'와 '영적 전

218) 노춘희, 김일태, *도시학개론*, 13.

219) Ibid.

220) Ibid., 14-15.

221)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도시행정론* (서울: 대영출판사, 2005), 22.

222) 박종관, "21세기 도시선교와 종족선교전략,"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2001, 2-4.

223) 홍영기, "선교와 교회성장," 한국선교신학회 편,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81.

쟁'에 관한 것이다. 예수 전도단 출신의 조지 오티스(George Otis Jr.)가 그의 저서 *The Last of the Giants*에서 '영적 도해' 개념을 제시하였다. 영적 도해는 대상 지역의 외관이 아닌 영적인 실체를 조사하는 일이다. 가령 도시라면 도시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었던 범죄 행위를 찾아내고, 그 죄악을 배후 조종하는 악령을 회개와 기도로 영적 전쟁을 통해 쫓아내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영적 도해' 개념이 도시선교와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교회성장과 연결시킨 사람이 바로 교회성장학파의 피터 와그너였다.²²⁴⁾

도시 문제는 서로 다른 상황이 결합되어 문제의 파급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고용의 불안과 빈곤, 환경의 오염과 공해, 기반 시설의 부족과 교육, 의료문제, 범죄, 청소년 문제 등 모두가 오늘의 도시 문제이다. 복잡한 현대 도시는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빠르게 변한다. 따라서 도시선교는 세분화, 전문화 및 다양한 이론과 적용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도시선교신학의 대표적인 이론 네 가지를 소개하고 도시중심의 선교를 지향함에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첫째, 로저 그린웨이의 이론이다.²²⁵⁾ 도시의 기원은 타락 이전의 공동체가 확대되어 도시가 탄생되었다(창 1:28). 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곳으로 부조화가 없고 부패가 없으며 죄악이 없고 기쁨이 있고 인간의 복지와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 곳으로 오늘날 도시와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피조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구속주로 오신 주님은 인간이 짓밟히거나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존재라고 선포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셨다. 그러므로 도시선교는 빈민선교를 위해 토착화되어야 한다. 교회의 개혁과 개발은 장기적 목표 아래 일반적인 구제보다 자립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구제와 개발을 개종의 미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엘리슨(Craig W. Ellison)의 이론이다. 교회는 도시선교에 있어서 상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도시선교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영

224) 이재근, "중국 도시선교의 방법 고찰: 기독교실업인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2006, 8-9.

225) Roger S. Greenway, & Timothy M. Monsma, *Cities: Missions' New Frontie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김정립, "바울의 도시선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1999, 13-14에서 재인용.

적인 전쟁의 강도와 육체적, 감정적, 상호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담과 제자훈련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²²⁶⁾ 그들은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에 이르도록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사람들의 내면과 외면적인 삶에 깊이 영향을 주어 그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상담은 건강한 삶을 위하여 죄와 고통으로 인한 영적, 정신적 자원의 결핍에 직면한 사람들의 사고, 인지, 감정, 가치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셋째, 바크(Bakke)의 이론이다. 도시선교를 위하여 교회는 예배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장소를 구별한다. 교회는 많은 사람을 예배에 동참시키고 찬양의 모든 형태는 교회 예배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 성만찬은 이론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연결 고리이지만 주일 예배에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도는 정기적으로 드리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것이기에 자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순서대로 드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성경은 모두 같이 읽는 형태와 모두를 위해 한 사람이 읽는 형태를 절충한다. 선포는 설교와 가르침과 훈계를 포함하며 헌신은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대로 드려야 한다.²²⁷⁾

넷째, 그릭(Viu Grigg)의 이론이다. 빈민들을 위한 사역의 열쇠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주장은 1980년 제3세계 인구 8억 가운데 25퍼센트가 빈민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에는 세계인구 가운데 33.6퍼센트가 제3세계의 도시에 사는데 그중에 40퍼센트는 빈민가에 산다. 즉 2000년에는 세계 인구의 16퍼센트(10억)가 도시 빈민가와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로 제3세계의 경우 도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된다. 그는 이러한 도시 빈민들 선교를 위해 성육신적 사역을 주장한다. 사도시대 사역의 특징은 선포와 능력의 나타남, 자비의 행위들이다. 따라서 도시 빈민 선교의 특성은 상황에 따라서 형식주의, 고립주의, 소규모 등으로 위축되기 쉽다. 이러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육신 사역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226) Roger S. Greenway, *Discipling The City: A Comprehensive Approach to Urban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99-110. 김정립, "바울의 도시선교 연구," 14-15에서재인용.

227) Ibid., 137-148.

헌신한 사람들이 빈민을 위하여 일할 때 빈민들은 자신의 처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²²⁸⁾

도시는 선교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이중적인 역할을 해왔다. 즉 도시는 선교 중심지로서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하고 후원했으며, 미전도의 불신자와 이교도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선교지이다.²²⁹⁾ 로저 그린웨이는 도시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차지할 거라고 말한다.²³⁰⁾ 열국을 제자삼기 위해서 먼저 획득되어야 할 전략적 중심지가 바로 도시임을 강조한 말이다. 그리고 도시를 얻는 데 실패하면 세계를 제자로 삼는 데도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²³¹⁾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선교적 차원에서의 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도시 중심의 선교를 전개한 바울의 발자취를 먼저 살펴보자. 그리고 바울 시대보다 훨씬 복잡해진 오늘날의 도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선교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후 영락교회의 도시중심의 선교현황과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의 범위-“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를 살펴보면 이방인 땅에 되는 대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헬라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오이쿠메네’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도시는 세계 전체를 대표한다. 이러한 도시들에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도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본다.²³²⁾ 즉 바울은 선교 중심지들을 선택할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와 같이 일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구역 혹은 지방의 중심지들을 선호하였다. 그 도시들은 교통, 문화, 상업, 정치, 종교에 관한 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 도시마다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는 복음이 이 전략적 중심지들로부터 주변의 시골과 작은 도시로 전파될 것이라는 분명한 희망에서였다.²³³⁾

사도행전은 여러 도시를 거쳐서 이루어진 바울의 집중적인 도시선교와 그 중요

228) Greenway, *Discipling The City: A Comprehensive Approach to Urban Mission*, 159-170.

229) 이광순, *한국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72.

230) Roger S. Greenway,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이재범 역 (서울: 여수론, 1988), 14.

231) *Ibid.*, 37.

232) Harvie Conn, *도시목회와 선교*, 한화룡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77.

233)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182.

성을 보여준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로마는 위에서 언급된 이유들뿐만 아니라, 이들 도시들은 다양한 인종 그룹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모두 영향력 있는 중심지였다. 바울은 복음선포가 주위 지역에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여행했던 것이다.²³⁴⁾ 이런 도시들에서의 바울의 선교사역의 결과로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된다(행 13:49). 바울은 로마제국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도시들이 복음의 빛을 주변지역에 전파하는데 있어 전략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세계는 도시화되어가고 있다. 도시화 현상이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적 생활양식이 확대되며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이다.²³⁵⁾ 이러한 도시화 현상이 1900년까지만 해도 세계인구 가운데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9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수치가 29퍼센트로 증가했으며, 1990년대에 가서는 45퍼센트에 도달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50년대에는 그 수치가 65퍼센트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²³⁶⁾

세계인구의 증가와 함께 도시의 증가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1950년대 인구 1천만이 넘는 거대도시는 뉴욕과 런던뿐이었다. 그러나 1985년에는 인구 1천만을 넘는 도시가 10개나 되었고, 그 후 10년이 지난 1996년 통계에서는 16개의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에는 25개가 될 것이다.²³⁷⁾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제3세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1975년만 해도 이미 제3세계 총인구의 26퍼센트가 도시 지역에 살았다. 그런데다가 1975년부터 1990년 사이에 제 3세계의 도시 인구는 연평균 4.4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무려 92퍼센트가 증가했다. 따라서 제3세계의 총인구 가운데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37퍼센트로 쟁충 뛰었다. 도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 제 3세계 총인구의 61퍼센트에 해당하는 44억의 사람들이 도시 주민이 될 것이다.²³⁸⁾

234) 임영효, *사도행전에서 의 선교와 교회성장*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1997), 91.

235) Ebbie C. Smith, *균형 잡힌 교회성장*, 이명희 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214.

236) 한화룡, *도시선교*, 13.

237) Stone J. Patrick,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큼니다*, 이창규, 유병국 역 (서울: WEC출판부, 1999), 349.

238) 한화룡, *도시선교*, 23.

도시는 역사적 창조와 중심영역이 되어왔고, 한 나라의 발전적 중심지가 되어왔다. 그리고 기술 과학의 발전이 초래되었고 도시는 인간의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중심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인구의 대다수가 생활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2천년 전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도시중심의 선교가 중요한 전략이지만 도시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도시민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고,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와중에 도시중심의 선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것은 범죄한 인간이었다(창 4:17). 성경에서 말하는 도시민의 특성은 인간 중심주의이다. 이를 하비 콕스는 '세속화'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²³⁹⁾ 세속화는 무엇보다도 '전통의 붕괴'에서 나타나기 쉽다.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 생활양식을 부정하여 민족적 유산이 단절되기 쉬우며 기성세대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도전을 받게 된다. 동양적인 아름다운 풍습과 농어촌에서 보기 쉬운 문화유산들이 도시 속에서 그 의미와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의 실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세속화는 신성이나 거룩함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을 띤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도의 위력 같은 개념은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며 오히려 현실적인 과학과 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러한 세속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다양하고 심각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범죄문제이다. 이제 대부분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밤이 공포의 시간이 되고 있다. 폭력이 일반화되어 성폭행을 비롯한 잔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²⁴⁰⁾ 10대 청소년의 자살 증가, 인신매매의 성행, 각종 악행과 무법한 사건이 도시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는 성경의 예언이 슬프게도 사실이 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로 나타나는 것이 실용성이다. 실용주의적 도시화는 인격을 경시하고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성공주의나 결과위주 사고방식을 초래하였다. 방법이 비윤리적, 반사회적이라 해도 목적만 달성하고자 하는 비신앙적인 삶의 형태가 형성되었다.²⁴¹⁾ 제3세계의 여러 나라가 경제적 성장이나 정권

239) Harvey Cox, *세속도시: 현대문명과 세속화에 대한 신학적 전망*, 구덕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5.

240) 박광철, "도시화와 세계 복음화 문제," *교수논총* (1989): 135.

탈취를 위해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빈번한 것도 이러한 결과 중의 하나일 것이다.

도시 생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웃이 멀어지고 개인이 개별화한다는 것이다. 고층아파트라는 분리된 가옥 구조가 이웃을 소외시키며, 각종 범죄와 연관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고의 분리도 있으며, 협력과 경쟁의 삶의 형태가 개인화를 더욱 가중시켰다. 성경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한 죄는 관계단절을 초래하였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간에도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여 선생과 학생, 국민과 지도자들 사이에도 단절현상이 나타난다.²⁴²⁾

도시의 발달과 함께 대규모적 조직의 지배와 대중적 성격의 평배가 일어났고 이에 정비례하게 나타난 것이 인간의 소외이다.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능력주의 사회, 곧 인간을 얼마나 능력을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하는 사회가 되자 사회에 대한 능동성과 일의 성취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소외를 부채질하게 된다.²⁴³⁾ 즉 비인간화 현상이 소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도시에서는 가치체계가 해체되며 또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와 나의 관계는 없고 오직 나와 그것만의 관계가 존재하는 비인간화가 평배하게 된다.²⁴⁴⁾ 하비 콕스가 현대사회와 도시의 특성 가운데 ‘익명성’을 들은 것은²⁴⁵⁾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도시인의 소외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도시빈민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도시화를 통해 만들어졌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는 도시중심의 선교에 힘썼던 바울 시대보다 더욱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도시민들의 개인주의와 소외 등의 비인간화 모습은 오히려 공허한 도시민들의 가슴에 생명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시선교학자들의 이론들과 많은 문제를 안고 변화하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중심의 선교사역을 지향했던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도시선교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241) Cox, *세속도시*, 73.

242) 박광철, “도시화와 세계 복음화 문제,” 116-117.

243) 오갑환, *사회구조와 변동* (서울: 박영사, 1974), 90.

217) Harvie Conn, *현대도시교회의 전망*, 한화룡 역 (서울: 여수론, 1992), 15.

245) Cox, *세속도시*, 57.

첫째, 개인 전도이다. 바울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의 변화된 삶을 나누었다. 그리고 상호신뢰 관계를 통한 복음증거 이후에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재생산을 위하여 그들을 활용하는 개인전도법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클 그린은 바울 사역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개인선교와 가정선교를 언급하였다.²⁴⁶⁾ 그는 바울의 선교전략 가운데는 개인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서신서들의 끝부분에 수없이 등장하는 개인의 이름(딤후 4:19-21; 골 4:7-17)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을 바울의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증거하여 동역자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바울과 그의 제자인 디모데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그의 바울과의 만남은 1차 전도여행으로 바울은 그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2차 여행 때에 할례를 받게 하였으며,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림자처럼 바울의 시종을 들었다(행 16:1-3; 20:1-5; 고전 4:17; 딤후 4:12-16).

21세기의 도시화 시대는 대중 집회나 노방 전도보다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한 전도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바쁜 도시인, 동시에 자신의 가슴에 있는 상처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도시인, 이들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통한 상담과 전도는 21세기 도시선교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둘째, 영성 운동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 폭력, 약물 중독, 성적 타락, 낙태, 이혼 등, 이러한 문제들은 다 영성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²⁴⁷⁾ 인간은 내면의 깊은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세속적, 물질적 가치들에 탐닉하게 되고, 그것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많은 현대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를 영성의 위기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영성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기독교 2천년 역사를 돌아 볼 때 위대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난 때는 그 당시의 세계 질서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정신적, 도덕적, 종교적인 타락이 위험 수위에 와 있을 때였다.²⁴⁸⁾

21세기에는 영적인 관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과학과 물질의 풍요는 도래했지만 과학과 물질의 풍요가 주지 못하는 영적인 빈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급함

246)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4.

247) 이양호, "에큐메니칼 시대의 기독교 영성 운동," *기독교 사상*, 1996년, 63.

248) 정진경, *이런 목회자가 교회를 변화시킨다* (서울: 하나출판사, 1995), 275.

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은 내면의 공허와 황폐를 매울 수 있는 영성에 대한 갈증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²⁴⁹⁾

첫째, 영성은 물질이 아니고 관계성이다. 동양적인 영성의 주류는 인간의 품성의 수양과 변화에 두고 있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인격적인 초월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적이다. 둘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삶은 초월적인 경험을 가져오며, 그 결과로 새로운 지평의 확대, 새 삶으로의 출발을 하게 한다. 셋째, 영성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의 경험, 과정, 결과를 통합적 영성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이란 하나님과 지속적인이고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토대로 새 삶, 새 인격, 새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과정이며,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삶이 기독교 영성이다. 또한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교회를 갱신하며 도시를 선교한다.²⁵⁰⁾ 물질문명의 발달로 영적인 기근에 빠지게 될 21세기 도시에서 영성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도시 선교 전략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영성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개인 지향적 영성 운동에 힘쓰는 것이 좋다. 인간 존재는 개별적이며 독특하고 신비한 존재로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속에서만이 참다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 영성훈련으로 각 개인의 일시적 각성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존재의 근본적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할 것이다.²⁵¹⁾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공동체적 영성이다. 경쟁과 경쟁의식의 증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고독을 느끼게 한다. 이 의식은 불안을 고조시키는 한편 일치와 공동체의 삶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 우정, 형제애, 자매애

249) 정진경, *이런 목회자가 교회를 변화시킨다*, 285.

250)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238-246.

251) 유해룡, “다시 생각해보는 기독교 영성훈련,” *교육교회*, 1993년 9월호, 33.

가 그들을 고독에서 해방하고 친밀감과 소속감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보게 한다.²⁵²⁾ 다원화 사회 속에서 대처하기 위한 에큐메니즘은 더욱 공동의 정신과 공동의 문화, 공동의 가치, 공동의 행위를 강력히 요구한다.²⁵³⁾ 따라서 오늘날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하며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체 속에서 동료인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적 영성을 잘 조화를 이루어 21세기 도시 선교를 위한 전략으로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소그룹 활동이 도시 선교 전략이 될 수 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볼 때에 회심자들이 종종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 교회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가정 교회를 소그룹 활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네(Kenneth Bonne)는 네 가지 기본적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소집단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네 가지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상의 계획을 위하여, 전인적인 변화를 위하여 그리고 개인적인 안정을 위하여 등이다.²⁵⁴⁾ 그리고 한화룡은 소그룹의 이점에 대해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들에서 새로운 이주자들은 그들이 도시로 이주해오면서 상실하거나 약화된 공동체 의식과 개인적인 자존심을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이주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들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차적인 관계들을 맺을 수가 있다. 셋째, 가정교회는 복음 전도를 하기에 자연스러운 환경이다.²⁵⁵⁾

초대교회 당시에는 야손의 집에서(행 17:5), 유스도의 집에서(행 18:7), 빌립의 집에서(행 21:8), 그 밖의 여러 집에서 모임을 갖고 활동하였다. 도시 선교 전략의 하나로 가정교회, 즉 소그룹 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²⁵⁶⁾ 소그룹을 통하여 상담, 제자훈련, 예배, 성만찬, 봉사, 전도 등이 가능하기에 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영락교회는 도시중심의 선교를 지향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파송한 선교사들의 선교지는 철저히 도시중심이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252) Henri J. Nouwen, *삼처입은 치유자*, 이봉우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7), 95.

253) 맹용길, *기독교 윤리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202.

254) Alvin Lindgren, *교회개혁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157.

255) 한화룡, *도시선교* (서울: IVP, 1993), 139.

256)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학*, 고원용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79), 416.

의 나라의 대도시에 파송되었다. 인도를 제외한 기존의 선교사들도 대부분 대도시에 파송되어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²⁵⁷⁾ 그렇다면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싱가포르에 파송되어있는 손중철 선교사는 싱가포르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인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섬지역 등을 선교해 왔다. 신학교를 세우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을 세웠으며, 팔렘방 지역엔 여의도 두 배만한 농장을 조성하여 현지 신학교 졸업생들을 후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도시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²⁵⁸⁾ 특히 신학교 졸업생들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로 파송하여 그들에게 개인 전도와 소그룹을 통한 양육,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체적 영성훈련 등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한인교회는 약 500명이 출석하는 이민교회로서 선교지향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영락교회의 후원과 싱가포르한인교회의 적극적인 선교열정으로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칠레 선교는 수도 산티아고에 위치한 칠레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인선교에 힘쓰는 동시에 현지인 신학교를 세워 졸업생들을 주변 지역 선교에 활용하고 있다. 졸업생들을 통하여 여러 개의 현지인 교회를 세웠으며 자립하도록 격려하고 후원을 하고 있다. 2007년도에 현지인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 한 명을 추가로 파송할 계획이기에 칠레영락교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파송된 김상현 선교사는 자카르타 현지에서 신학생들을 모아 교회를 세워 목회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있다. 동시에 주변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한다. 그는 앞으로 자카르타에서 현지인들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 밑거름이 현재의 신학생들의 모임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변지역까지도 복음화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²⁵⁹⁾

257) 두 명의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인도는 벵갈로는 대도시이지만 크리슈나기리는 작은 지방도시이다.

258) 본 연구자는 위에 열거한 신학교와 여러 학교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팔렘방 지역의 농장을 둘러보다가 너무 넓어 포기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중철 선교사를 존경하며 그를 'Visionary'라고 확신하고 있다.

259) 2005년 영락교회 선교대회에 참석한 그는 본 연구자와의 만남에서 그러한 계획을 밝혔다.

중국 T지역은 제법 큰 도시이다. 그러한 도시이기에 지방에 흩어져있던 젊은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신학교를 이루고 있다. 이곳이 아니라 지방에서 신학교를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불편하고 비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거나 기존 교회의 사역자로 섬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중심의 선교전략에 비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B도시와 S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교전략은 무엇인가? 도시중심의 선교전략을 통해 많은 선교의 열매를 경험해온 영락교회가 최근에 중국의 B도시와 S도시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세계적인 도시라 기대가 크다. 그렇다면 이들 도시에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지, 주변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의 빛을 비출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선교사를 대도시에 보내는 그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교전략과 방법을 숙히 가져야 할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라 그곳에 거하는 도시민들에게 개인전도, 영성훈련, 소그룹 활동 등을 통한 선교전략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도자급 제자 훈련 등을 통해 동역자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캄보디아 영락평화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재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이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킬링필드의 나라가 캄보디아이다. 이곳의 수도 프놈펜 변두리에 영락교회 청년들이 2002년 겨울에 '영락평화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봉헌했다. 현재 6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으며 영락교회 청년들이 여름마다 비전트립을 가고, 영락교회 의료선교회가 여름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 영락교회 선교부에서는 매월 선교비를 그곳에 보내고 있다.²⁶⁰⁾ 그러나 이런 식의 선교를 하기엔 그곳이 너무도 복음수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부에서는 캄보디아 영락평화교회뿐만 아니라, 프놈펜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복음수용성을 측정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 등을 파송하여 협력선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

260) 본 연구자는 2002년에 청년부 지도목사를 하던 중 캄보디아를 세 번 방문했고, 그 시기에 '청년선교비전2002'를 통해 모금을 했으며, 결국 그 해에 '영락평화교회'를 그곳에 세웠다.

다면 기존의 의료선교와 청년들의 비전트립, 그리고 청년 단기선교사 파송 등의 힘을 결집시켜 많은 결실을 맺는 선교현장이 될 것이다.

영락교회는 대도시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문화 사역 등을 통해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주변 도시 등으로 파송하여 사역케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도시민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선교를 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 자신이나 그가 양육한 현지인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도시민들의 상처난 가슴을 보며 위에 기록한 전략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선교의 효율성 개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그러기에 복음의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반응이 좋은 곳에 집중하는 선교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울은 임박한 재림을 염두에 두고 시간절약에 힘썼다. 자기가 하는 일만이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꾼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지 꼭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였기에 남이 닦아 놓은 터 위에다 집을 짓는 에너지 낭비는 안하기로 작정하였다(롬 15:20; 고후 10:13, 15, 16). 같은 복음을 여러 사람이 여러 지방에서 빨리 전해서 예수 재림 이전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생기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남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 바울이 또 가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고 보았던 것이다.²⁶¹⁾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의 설교에 반응이 약한 곳보다 반응이 좋은 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 및 자원으로 어떤 지역에 선교적인 노력을 경주하느냐 하는 문제는 언제나 제기되는 일인데 반응이 빠른 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원리이다.²⁶²⁾

복음의 수용성, 복음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하나님의 다리(The Bridge of God)'개념은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잘 받쳐주고 있다.

261) 박창환, "바울의 선교 원칙," 17-18.

262) 서정운, *교회와 선교*, 36.

그는 여러 해 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속적인 기독교 신앙의 확장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친척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친척에서 친척, 가까운 친구에서 친구에게 가장 잘 흐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적이나 언어를 불문하고 유사했다.²⁶³⁾

맥가브란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선교전략*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모든 민족은 사회의 다양한 층들로 이루어졌다. 많은 국가들에서 매 계층은 다른 모든 계층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된다. 각 계층에 있는 개인들은 전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로 같은 부류와 결혼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친분관계는 그들 자신의 사회, 즉 그들 자신이 속한 부류들에 제한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 속한 개인들로부터 물건을 사고 팔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친분관계는 그들이 속한 부류의 개인들로 이루어진다....(이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할 때 이 사실은 그들의 삶 자체에 영향을 끼친다.²⁶⁴⁾

초대교회는 그 다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출발하였다. 그들의 다리는 보통 사람들, 즉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을 위한 것이었다. 소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기는 하였으나(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사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사회의 상류 계층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박해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될 때 그들은 당연히 피난처를 유대 촌락들에 사는 그들의 친척들에게서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친지들에게 주 예수에 관하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구원의 길에 관하여 말하였다. 교회는 유대의 농부들 가운데서 크게 성장하였다.²⁶⁵⁾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바울이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다리들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는 로마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사는 26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이들 중 몇 사람은 바로 바울의 친척이었다. 이들 26명은 로마의 유대

263) Donald McGavran, *교회성장이해*, 이요한, 김종일, 전재옥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87), 567-568.

264) McGavran, *하나님의 선교전략*, 1.

265) McGavran, *교회성장이해*, 568-569.

인 공동체 내에 친척들과 친지들이 있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자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유대인 공동체내에서는 그의 다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로 나아갔고 또한 그들이라는 다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²⁶⁶⁾

이러한 맥가브란의 주장에 대해 조지 헌터(George Hunter)는 다음과 같이 동조하고 있다.

전략상 중요한 아메리카 교회는 동포들에게 특히 적극적인 기독교인들과 새로운 개종자들의 친구들을 찾아내서 손을 뻗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교회 또한 계속하여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도록 그 성원들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사회적인 네트워크 내의 신뢰할 만한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접근될 때 더욱 수용적으로 된다.²⁶⁷⁾

그러나 여기서 글라서의 주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위에 열거한 대로 바울이 복음 수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였음을 강조한다.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였다. 성령께서 그와 동료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행 16:6-10)²⁶⁸⁾는 것이다.

맥가브란 역시 바울이 이런 곳들을 방문하기로 선택한 것은 그곳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고, 기도로 순화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복음을 가능한 편만하게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성령께서 복음을 잘 듣도록 만든 곳에 그의 노력을 집중하였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났는데 사도행전에 적어도 여섯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행 13:46; 14:5; 18:1; 19:9; 28:26-28).²⁶⁹⁾

그렇다면, 영락교회는 반응좋은 곳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선교전략을 가지고 있는

266) McGavran, *교회성장이해*, 569.

267) McGavran, *하나님의 선교전략*, 126.

268)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93.

269) Ibid., 494.

가? 영락교회는 선교의 능동성, 집중성, 효율성이라는 선교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교정책에 따라 복음수용성이 높고 인구가 많은 중국에 선교사를 네 명이나 파송했다. 그리고 선교의 열매도 크게 경험하고 있다. 2007년도엔 한 명의 선교사를 추가 파송할 계획이 있는 것 역시 반응좋은 곳에 집중하고자 하는 본부의 의지임을 알 수 있다.

단기 선교사들이나 비전트립을 중국으로 보내고, 부목사들이 지속적으로 현지인 교수들과 졸업생들을 위해 강의를 하고, 그곳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재정후원을 하는 '장학회'까지 만들어진 것은 반응좋은 곳에 집중하는 선교전략에 의한 것이다. 이곳에 신학교를 세울 때 많은 물질을 기쁨으로 후원했고, 다른 지역에 또 하나의 신학교를 세우게 된 지금도 영락교회는 기도와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²⁷⁰⁾

인도네시아 신학교에 2006년부터 부목사들이 중국 신학교처럼 강의를 하게 된 것은 복음수용성이 높은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고자 하는 전략에 의한 것이다. 이곳에 이미용선교팀과 인터넷선교팀 등이 다녀갔지만,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선교팀들의 협력선교가 있어줄 때에 중국 못지않은 선교의 열매를 보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첫째, 중국의 복음수용성은 계속 높을 것인가?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에 복음수용성은 하락할 것이라고 많은 선교사들은 말한다.²⁷¹⁾ 그런 맥락에서 영락교회는 다수의 선교사를 집중해서 파송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다음으로 선교를 집중할 곳에 대해 영락교회를 담임하는 이철신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은 중국에 집중하고, 기존의 선교지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중국의 복음수용성이 떨어질 경우 다음 집중지는 인도네시아요, 그 다음은 중앙아시아다."²⁷²⁾

중국 이후에 인도네시아요, 그 다음이 중앙아시아라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파송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선교의 열매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 못지않은 추수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

270) 영락교회는 K지역에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식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이는 영락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었다.

271) 2001년 영락교회 선교대회 기간 중 '중국선교사대회'를 장신대와 협력해서 개최했으며, 그 기간 중에 선교사들의 발제에 의하면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엔 복음수용성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272) 2003년 본 연구자가 선교부 지도목사로 사역할 때 자주 나누었던 대화내용이다.

국,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에 동시 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네시아 대도시에 선교사를 추가로 파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카르타에서의 경험을 살려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중앙아시아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선교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부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집중하면서 중앙아시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복음수용성면에서 캄보디아도 관심 대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캄보디아는 중국 못지않게 복음수용성이 높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복음화하는 데 중요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더욱이 영락교회 청년들에 의해 '영락평화교회'가 세워졌고, 지속적으로 단기선교사들과 의료선교팀이 파송되는 곳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본부에서는 캄보디아의 복음수용성 등을 치밀하게 조사하여 집중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도의 두 선교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인도에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한 명의 선교사는 대도시인 벵갈로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며 문화선교대학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 명의 선교사는 크리슈나기리라는 작은 지방도시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큰 사역지를 이루었다.

선임선교사가 곧 은퇴를 할 예정이니 두 곳의 사역을 통합하고, 앞서 제기한 협력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반응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2년 전에 중국 동북쪽에 있던 선교사를 서쪽으로 이동시켜 현재의 선교지를 이루고 있다. 또한 대만 카오슝에서의 20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가 은퇴를 했는데, 후임선교사를 보내지 않고 그곳에 보낼 선교사를 중국 본토로 보냈다. 현재 대만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은퇴선교사가 하던 산지족 성경번역 사업에 재정지원만 계속하고 있다.²⁷³⁾ 그런데 중국의 경우, 언어훈련을 마치고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경우이기에 이동이 쉬웠고, 대만의 경우, 은퇴를 한 경우이기에 쉬웠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선교사들은 기존의 선교지보다 더욱 효율성이 높은 선교지가 있

273) 대만 카오슝에서 20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한덕성 선교사는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산지족인 루카이족 선교를 하던 중에 말은 있으나 문자가 없는 그들에게 신약성경을 번역해 주었고, 현재 구약성경을 번역중에 있다.

다면 과감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본부는 과감하게 이동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선교사들은 지금의 선교지가 효율적이어서 10년, 20년,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머무는 것인가? 케인의 주장처럼, 선교현장에서의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선교의 효율성 보다는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²⁷⁴⁾

선교사들은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선교지를 이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본부는 사도바울의 선교전략을 잘 연구하여 선교현장에서의 이동을 통해서라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즉 더 잘 할 수 있는 팀이나 교회에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 잘 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선교의 열매로 선교사를 평가하는 풍토를 바꿔나갈 때 이동을 해서라도 효율적인 선교를 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선교사들이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274)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119.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사도바울의 선교전략을 살펴보았고, 더불어 영락교회의 선교현황과 선교개발을 위한 제안 등을 사도바울의 선교전략에 비취 살펴보았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의 선교의 배경을 살펴보는 중에 성령께서 복음전파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음을 보았다. 스티븐 니일의 주장대로 통일제국 수립과 잘 포장된 도로건설을 통해 복음을 신속히 전할 수 있었으며, 헬라어라는 공용어가 있었기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으며, 로마 제국에 흩어져있는 막대한 유대인(디아스포라)이 있었기에 그들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²⁷⁵⁾ 그 외에도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에 항상 있었던 '회당'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그곳에서 가르침과 선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²⁷⁶⁾ 더욱이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할 성경이 필요했는데, 구약성경을 당시의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선교의 도구가 되었다.²⁷⁷⁾

이러한 선교의 배경 위에서 사도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의 선교현장을 들여다볼 때 그의 선교전략을 성경을 통해, 또 많은 선교학자들, 곧 허버트 케인, 이광순, 서정운, 데이비드 보쉬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바울의 선교전략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면 첫째, 동역자들과의 협력, 둘째, 도시중심의 선교, 셋째, 반응좋은 곳에 집중하는 선교전략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선교전략이야말로 초대교회 선교를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바울의 세 가지 선교전략에 비취 영락교회 선교

275) Neill, *기독교선교사*, 29-31.

276) 장훈태, *초대교회 선교*, 27.

277) Gonzalez, *초대교회사*, 26-27.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하거나 더욱 힘써야 할 부분과 새롭게 개발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사도바울의 선교전략에 비취본 영락교회의 선교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대거 발굴하고 파송할 필요가 있다. 영락교회 선교현황에서 제시한 대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수는 너무도 적다. 선교는 안수받은 교역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히 전문인 선교사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도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오늘날 선교의 중요한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전문직을 가지고 바울을 도왔던 의사 누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자주 장사 루디아 등은 당시의 전문인들이었다. 교회와 목회자는 이런 평신도를 길러내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교사는 이런 평신도 전문인들과 동역하는 일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²⁷⁸⁾

본 연구자가 러시아 우수리스크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N교회는 교역자로서 파송된 선교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문가 부부, 의사부부 등이 전문인 선교사로 함께 파송되어 동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²⁷⁹⁾ 지역주민들을 위해 작은 병원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며 경제적인 유익을 준다. 그러는 중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영락교회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대거 발굴하고 파송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 이것은 협력선교 차원에서, 또한 선교의 효율면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매년 10월에 진행되는 '선교대회' 기간에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교부에서 그들의 자원서를 받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지만 관리보다는 공격적인 발굴과 훈련, 그리고 파송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문인 선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의 기회도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단기선교사를 파송할 때 현지 선교사가 요청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파송할 필요가 있다. 한국일은 선교활동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접근이 있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78) 손중철 편, *21세기 아시아를 향한 한인선교* (서울: 성서연구사, 2000), 28.

279) 2003년 5월에 본 연구자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우수리스크 등을 방문하는 중에 만났던 서울의 N교회 선교사들이다.

선교 현장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선교 동역자로 협력해야 한다. 과거에는 목회자 중심의 선교가 주도적이었으나 선교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평신도의 활동이 더 필요한 곳이 있다.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선교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실현하는 선교의 다변화를 지향해야 한다.²⁸⁰⁾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의 단기선교사 파송은 현장의 요청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영락교회는 단기선교사를 파송할 때 본인이 원하고 현지 선교사가 허락하면 파송된다. 물론 소정의 선교훈련을 마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 현지의 선교사가 본부에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다. 현지에서 필요한 단기 선교사의 달란트와 신체조건, 그리고 성격과 성별 등을 미리 본부에 알려주면, 좀더 현장에 적합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협력선교가 이루어 질 것이다.

더불어 선교훈련시에 성경적 영성을 강조해야 한다. 선교세계관학교, 선교제자학교, 선교현장영어훈련, 전문인선교훈련 등을 통하여 선교현장에 보내지지만 간혹 현지의 선교사나 현지인 사역자들과 마찰을 일으켜 협력이 아닌 상처를 남기고 올 때도 있다. 기능적인 면이 아무리 탁월해도 성경적 영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역자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장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추종할 때 가장 귀히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성육신이 보여주는 '낮아짐'과 '금홍',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연약함'과 '화해'의 영성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인류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로 내려오셨다. 죄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함께 나누시려는 '금홍'은 공생애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적 동인이 되었다. '금홍'은 감정의 언어인 '동정'과 달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존적 참여를 수반하기 때문에 듣기에는 좋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영성이다. 이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지만 여전히 높은 위치를 고수하는 모습이 아니다. 강자가 더 이상 강자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낮아짐'과 '함께 함'이 실천되는 영성이다. 또한 강자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거슬러 나약하게 잡혀가는 '연약

280) 한국일, "세계선교 상황에서의 한국선교의 위치와 역할," 114.

함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셨다. 그러나 예수의 연약함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롬 1:16), 심지어 원수 된 유대인과 이방인마저도 화해시키는 능력이 있다(엡 2:13-18).²⁸¹⁾

한국일 역시 '약함과 연약성'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기독교는 평화를 위해 자신을 강화하고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해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의 자기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다.²⁸²⁾

선교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열정만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도하여 열정과 영성과 전문성이 잘 갖춰진 사람이 단기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선교현장을 제대로 돕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셋째, 선교사간에, 그리고 선교지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네 명의 선교사들간에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협력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의 두 곳 선교지간에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선임선교사의 은퇴 이후의 구상까지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선교지간에 효과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더불어 인도와 싱가포르라는 영어권 나라간에, 또는 중국과 싱가포르라는 중국어권 나라간에 협력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처럼 영락교회는 많은 선교사들간에, 많은 선교지간에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선교사를 섬기는 선교에 힘쓸 필요가 있다. 대형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사를 섬기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³⁾

매년 실시되는 '인터넷선교'는 선교사들에게 컴퓨터의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고, 부품을 업그레이드시켜주거나 새로운 컴퓨터를 기증하는 등 선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에 선교사들에게 인기가 좋다. 1년에 한번 실시하기보다는 여름과 겨울 2

281) 이장호, "21세기 세계선교의 변화와 흐름,"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컨퍼런스*, 95-96.

282) 한국일, "세계평화를 위한 선교 신학적 고찰," *장신논단* (2002): 614.

283) 영락교회를 담임하는 이철신 목사가 자주 주장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자에게도 여러 번 강조한 내용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를 의미한다.

회로 늘리거나, 여름에 한번 실시하되 두 곳으로 나누어 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역별 선교사대회’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005년 여름 서남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들이 스리랑카에 모여 선교사대회를 했으며, 이때 주강사는 이철신 목사였다. 이 목사의 진솔한 간증이 섞인 말씀전파로 인해 참여한 모든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받고 2년 후에 다시 와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 선교사대회엔 특별히 영락교회 인터넷선교팀이 기술적으로 진행을 도왔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영락교회에서 지원했다.²⁸⁴⁾ 이러한 일은 평소에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를 주장해온 이철신 목사의 선교 철학에 의한 실천이었다.

영락교회는 매년 농어촌교회 목회자 부부들을 초대하여 영락교회 설악산 수양관에서 3일간 목회자 대회를 갖는다. 이때 영락교회 담임목사가 직접 강의를 하고, 농어촌 목회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특강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하며 특별히 사모들만을 위한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참가자들은 전한다.²⁸⁵⁾ 모든 비용과 선물까지도 준비하는 영락교회 선교부원들과 여전도회원들의 사랑의 섬김은 목회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이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파송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여러 가지 형편상 고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선교현장에서의 갖가지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며, 가슴에 말 못할 상처와 분노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태로 사역을 지속한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선교현장이 어지러워질 수 있다. 이런 선교사들을 위해 영락교회가 선교사를 섬기는 선교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영락교회 설악산 수양관도 좋고,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여자신학교, 또는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 등도 좋은 장소이다. 이런 곳으로 초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면 선교사를 돕는 선교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목회자 수련회를 통하여 얻은 경험들을 살린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영락교회는 이철신 목사의 선교 철학처럼, 선교사를 돕는 선교를 더욱 늘려야 한

284) 서남아시아에 ‘쓰나미’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때인지라 위로와 격려가 더했던 대회였으며, 당시의 서남아시아 선교회장은 공식적으로 2년 후에 다시 와 줄 것을 이철신 목사에게 요청했다.

285) 이 수련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선교부의 김인 목사는 “관심과 격려를 받으니 행복해지고 새 힘이 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본 연구자에게 여러 번 했다.

다. 영락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는 물론이요, 다른 많은 선교사들이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선교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교부 담당 교역자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교부를 섬기는 교역자는 문화선교, 북한선교를 포함해 목사 4명, 전임전도사 3명, 그리고 교육전도사 2명으로 9명이다. 이중에 선교부를 총괄하는 선교부 지도목사만큼은 장기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잦은 지도목사의 교체는 아무리 정책과 전략이 세워져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이다.²⁸⁶⁾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사역할 수 있는 지도목사가 세워질 때 영락교회의 선교정책과 전략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이며 지속적일 수 있어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증보기도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영락교회엔 ‘영락기도대’라고하는 증보기도팀이 있다. 주일에 1-5부 예배시에 각기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 평일엔 조별로 릴레이 증보기도를, 수요일에는 오전예배 직후 선교사들을 위해 증보기도를 한다. 그런데 수요일 선교사들을 위한 증보기도 시간이나 새벽기도회 때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보면 새로운 기도제목이 별로 없다.

선교부에서는 담당자를 선정하여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계속 새롭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증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도 알 수 있도록 담당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교사와 증보기도팀 사이에서 담당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선교현장은 물론이요, 교회 내에 선교열정도 더해질 것이다.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들이 귀국한 경우 수요일 증보기도시간에 간증과 기도제목을 나누도록 하여 선교사는 격려를 받고, 교회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고조되는 효과를 누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영락교회는 사도바울의 선교전략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여 21세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1장에서 밝힌 대로 영락교회의 해외선교에 국한시키다보니 북한선교, 학원선교, 문화선교, 군선교 등의 부분을 다루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특별히 영

286) 현재 지도목사인 김인 목사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2월 현재까지 선교부를 지도하고 있기에 다른 지도목사들에 비해 그 기간이 긴 편이다.

락교회의 북한선교는 실무 경험과 선교신학적 도구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교회의 대 북한선교의 좋은 지침이 될 것이기에 차후 이에 관한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강석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바울의 선교에 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1989.
- 곽선희, "성령과 선교," 한국교회 100주년 선교대회 보고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교회 100주년선교대회 준비위원회, 1983.
- 권오현, 바울의 생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김경두, "21세기 도시선교의 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2000.
- 김동익, "21세기 한국교회의 선교협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2000.
- 김득중, 사도행전 연구, 서울: 나단 출판사, 1989.
-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김수신, 허중경, 도시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2.
- 김정립, "바울의 도시선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1999.
- 김학수, "한경직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1993.
- 김현호, "한경직 목사의 템플턴상 수상식 참관기," 만남, 1992년 5월호.
- 노춘희, 김일태, 도시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0.
- 맹용길, 기독교 물리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민석홍, 서양사 총론, 서울: 삼양사, 1993.
-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_____, "도시화와 세계 복음화 문제," 교수논총 (1989).
- 박운선, 성경주석: 사도행전, 서울: 영음사, 1981.
-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도시행정론, 서울: 대영출판사, 2005.

- 박종관, "21세기 도시선교와 종족선교전략,"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2001.
- 박창환, "바울의 선교 원칙," *교회와 신학* (1996).
- 이상근, *사도행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1.
- 서성민, "한국 장로교회 선교의 협력," *선교와 신학*.
-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8.
- _____, "선교동역과 한국교회," *교회와 신학* (1997).
- 손증철, *21세기 아시아를 향한 한인선교*, 서울: 성서연구사, 2000.
- 오갑환, *사회구조와 변동*, 서울: 박영사, 1974.
- 안승오, "평신도 전문인 선교의 성경적 예증과 전망," *복음과 선교* (2006).
- 영락교회 35년사*, 서울: 영락교회, 1983.
- 영락교회 50년사*, 서울: 영락교회, 1998.
- 영락교회선교부, *영락교회창립 60주년 선교컨퍼런스 자료집*, 서울: 영락교회, 2006.
- 유해룡, "다시 생각해보는 기독교 영성훈련," *교육교회*, 1993년 9월호.
- 이광순, *한국 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5.
- _____, 이용원, *선교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1993.
- 이병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 준비와 접촉점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2001.
-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이양호, "에큐메니칼 시대의 기독교 영성 운동," *기독교 사상* (1996).
- 이장호, "21세기 세계선교의 변화와 흐름", 영락교회창립60주년 선교컨퍼런스.
- 이재근, "중국 도시선교의 방법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2006.
- 임영효,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1997.
- 장증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79.
- 장훈태, *초대교회 선교*, 서울: 솔로몬, 1996.
-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 정진경, *이런 목회자가 교회를 변화시킨다*, 서울: 하나출판사, 1995.

- 최종고, *영락교회의 부흥*, 서울: 한국문학사, 1974
- 한국일, "세계평화를 위한 선교신학적 고찰," *장신논단* (2002).
- _____,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 한승홍, *한경직의 생애와 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3.
- 한화룡, *도시선교*, 서울: IVP, 1993.
- 홍영기, "선교와 교회성장," 한국선교신학회 편,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 번역서적

- Barclay, William, *고대세계의 교육사상*, 유재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Bosch, David J.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Bruce, F. F. *바울 곁의 사람들*, 윤종석 역, 서울: 기독지혜사, 1999.
- Cox, Harvy, *세속도시*, 구덕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Conn, Harvie, *현대도시교회의 전망*, 한화룡 역, 서울: 여수문, 1992.
- _____, *도시목회와 선교*, 한화룡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Dayton, Edward R. and David A. Fraser, *세계선교의 이론과 전략*, 곽선희, 김종일, 이요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1.
- Demarest, B. A.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 이창우 역, 서울: 대한기독교문화협회, 1980.
- Drane, John W. *초대교회의 생활*, 이증수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9.
- Engen, Charles Va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운택 역, 서울: 두란노, 1991.
- Fleming, John & Ken Wright, *새로운 선교와 교회구조*, 김정준,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Glasser, Arthur F. *하나님의 선교*, 임운택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 Gonzalez, Justo L.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 Green, Michael *초대교회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_____,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Greenway, Roger S.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이재범 역. 서울: 여수문, 1988.
- Hoekendijk, J. C. *풀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선회, 1975.
- Kane, Herbert J. *기독교 세계선교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_____.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이재범 역. 서울: 나단, 1988.
- Ku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흥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5.
- Lindgren, Alvin. *교회개혁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Lohse, Eduard. *신약성서배경사*. 박창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Maxwell, John. *블렌의 리더십*. 채천석 역. 서울: 청우, 2001.
- McGavran, Donald. *하나님의 선교전략*. 이광순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3.
- _____. *교회성장이해*. 이요한, 김종일, 전재욱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87.
- Metzger, Bruce M. *신약성서개설*. 나채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 Neill, Stephen. *기독교 선교사 상*. 홍치모, 오만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
- Nissen, Johannes. *신약성경과 선교*. 최동규 역. 서울: CLC, 2005.
- Nouwen, Henri J. *상처입은 치유자*. 이봉우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7.
- Patrick, Stone J.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큼니다*. 이창규, 유병국 역. 서울: WEC 출판부, 1999.
- Siemens, Ruth. *직업선교: 21세기가 원하는 해외선교*. 이득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1.
- Smith, Ebbie C. *균형 잡힌 교회성장*. 이명희 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Wagner, C. Peter. *기독교 선교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Wood, Gene. *팀을 혁신하는 리더십*. 채천석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출판부, 2005.
- 세계교회협의회 엮음. *세계교회협의회 역대총회종합보고서*. 이형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 외국서적

- Allen, Roland. *The Case for the Voluntary Clergy*. London: Eyre and Spottiswoode, 1930.
- _____.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Eerdmans,

1964

- Boer, Harry R. *Pentecost and Missions*. Grand Rapids: Eerdmans, 1961.
- Brunner, Emil. *The Word and the Church*. London: SCM, 1931.
- Engen, Charles Van. "Toward a Theology of Mission Partnership." *Missiology*.
January 2001.
- Greenway, Roger S. *Discipling The City: A Comprehensive Approach to Urban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 _____ & Timothy M. Monsma. *Cities: Missions' New Frontie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9.
- Neill, Stephen.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London: Penguin Books Ltd., 1990.
- Peters, George W.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72.
- Purves, George T. *Christianity in the Apostolic Ag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29.
- Theissen, Gerd. *Sociology of Early Palestinian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Vita of
Chun Tae Par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The Presbyterian Church Delivering Happiness, Seoul

Personal Data:

Birthdate: Feb 5, 1964
 Birthplace: Seoul,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Kyeong Soon Jang
 with three Children, Da Eun, Ju Hyeon and
 Seong Hyeon
 Home Address: 277-206 Hongeun 3 Dong, Seodaemun Gu,
 Seoul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May 6, 1996

Education

Th. B. Sejong University, Seoul, 1989
 M. Div.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4
 Th. M. Graduate School of World Mission a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8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7

Personal Experience:

2006 to present:	Senior Pastor of The Presbyterian Church Delivering Happiness, Seoul
2000 to 2005:	Assistant Pasto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Seoul
1997 to 1999:	Assistant Pastor of Bok Doen Church, Bucheon
1997 to 1992:	Assistant Pastor of Ko Hyang Church, Seoul